



기독일보



2024년 4월 1일 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13호

“부활의 생명과 능력,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부활절인 3월 31일 드려져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부활의 생명과 능력만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며 부활절인 3월 31일 오후 4시 서울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에서 진행됐다.

◆“부활의 능력이 한국교회의 소망”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요한복음 11:25-26)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 대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사랑과 용서가 없다.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직 부활의 능력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며, 오직 생명의 복음이 민족의 희망”이라며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열방의 소망으로 우뚝 서서 부활의 기쁜 소식과 예수 생명의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전할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힘써 기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자유민주

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자”며 “이 시간 부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전했다.

◆“부활의 참 증인 되는 길, 거기에 영원한 희망”

설교는 한국교총 공동대표회장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인 이철 목사가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목사는 “새 봄처럼 어김없이 찾아온 주님의 부활 소식은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할 인류의 참 희망”이라며 “주님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했다.

그는 “성경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라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다.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설명할 수 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설명하는 결론”이라고도 했다.

이 목사는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 영원히 사는 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



“예수 부활을 축하하며”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뉴스시스

지금의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전혀 다른 삶의 질이 형성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의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되지 못해 삶

이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고난이나, 십자가도 그 너머 부활이 있음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며 “부활의 참

증인이 되는 길, 거기에 영원한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부활절이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부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부활절 선언

또 이날 연합예배에서 발표된 ‘한국교회 부활절 선언문’에는 내년 선교 14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소망을 품은 5가지 선언이 담겼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섬김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반대 △복음통일 소망 등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선교 150주년을 바라보며 예수의 부활, 생명의 복음으로 힘을 얻어 민족의 화합과 세상의 화평을 위해 이 해하고 존중하며 나누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더욱 힘쓴다”고 했다.

이번 연합예배 헌금은 서울-경기지역 중교등학교에 재학중인 장기체류 이주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아동들은 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교육급여나 교육활동 지원 등 복지혜택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학용품, 교복 구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최희 측은 “한국교회와 부활절 연합예배의 정신과 의미를 구현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웃 가운데 법적으로도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에 공헌하시며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부활, 온 인류의 기쁨”... 교계, 부활절 퍼레이드

‘Go Together!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제로 광화문~서울광장, 작년보다 2배 규모인 3.4km 구간 정교계 주요인사들·60여개 팀과 1만 5천여 명 참가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정교계 주요인사들과 60여개 팀,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Go Together!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작년보다 2배 규모인 3.4km 구간을 행진했다.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는 모든 출연진이 함께하는 대집행으로 시작과 끝을 장식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한국교회 부활절퍼레이드 조직위 상임회장의 대표 기도를 시작으로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환영사를 전한 이철 감독회장(기감, 한국교회부활절퍼레이드 조직위원회 공동대표회장)은 “그동안 부활절은 교회 안에서만 행해졌다.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기에 교회 안에서만의 부활절이 아닌 온 국민과 함께 나누는 부활절, 소망과 사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의식 목사(예정통합 총회장, 한국교회부활절퍼레이드 조직위 공동대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전파가 헛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며 “부활의 증거로 오늘날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는 복 받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되었다.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K-드라마, K-POP에 이어 부활절 퍼레이드까지 유명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으로 오정호 목사(예정통합 총회장, 한국교회부활절퍼레이드 조직위 공동대표)는 “한국교회부활절퍼레이드 조직위 공동대표회장(기감, 한국교회부활절퍼레이드 조직위원회 공동대표)은 “그동안 부활절은 교회 안에서만 행해졌다.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기에 교회 안에서만의 부활절이 아닌 온 국민과 함께 나누는 부활절, 소망과 사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의식 목사(예정통합 총회장, 한국교회부활절퍼레이드 조직위 공동대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전파가 헛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며 “부활의 증거로 오늘날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는 복 받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되었다.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K-드라마, K-POP에 이어 부활절 퍼레이드까지 유명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한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은 “한국교회의 최대 축일인 부활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잘 담아낸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가 K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 퍼레이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축하를 전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길 바란다”며 “그리고 선거 한 가운데 나라가 갈등 상황에 있다. 부활절을 계기로 갈등이 화해로, 분노는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꽃소리, 부활의 아리아가 메아리치게 하소서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30일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Go Together!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왼쪽은 법계를 형상화한 조형물의 행진 모습. 오른쪽은 정교계 주요인사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 ©CTS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30일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Go Together!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왼쪽은 법계를 형상화한 조형물의 행진 모습. 오른쪽은 정교계 주요인사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 ©CTS

라는 제목의 축시를 낭독했다.

개막선교를 한 김경철 회장(CTS기독교 TV, 한국교회부활절퍼레이드 조직위 공동대표)은 “오늘 함께 걷는 힘찬 걸음이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질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퍼레이드는 믿음의 여정, 소망의 길, 부활로 이룬 사랑, 내일의 희망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성경 이야기를 재현한 대도구와 다채로운 퍼포먼스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오전 10시

부터 오후 9시까지 다양한 상설버스와 이벤트, 어린이미술대회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 CTS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퍼레이드는 1부 개막식을 시작으로 퍼레이드와 가수 인순이·장민호 씨와 찬양시역자들이 함께하는 2부 기념음악회(오후 6시30분~8시30분) 순서로 이어졌다. 정지동 기자

서울 디지털밸리 퀴드러플 역세권 귀한 소형 아파트 선착순 분양!



2024년 6월 입주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 살거주 의무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도보 4분, 2호선-신안산선(2025년 초 개통) 구로디지털단지역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접 - 4개 노선 퀴드러플 역세권
- G밸리(구로-가산디지털국가산업단지) 약 15만 명 상주 직주근접 풍부한 배후 수요 확보, GTX D노선(가산역 예정)
- 구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도보 1분, 영서중학교 도보 통학권
- 구로이마트, 고려대구로병원, 가산패션아울렛, 재래시장, 수영장·피트니스센터
- 가리봉 신통기획 1, 2구역 3,800세대 확정(보상, 이주 준비 중) → 전지개벽 중
-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m당 3,787만원...1년새 24% 상승

직장인,신혼부부,무주택자 실입주금 7천만 원대로 내집마련	품 목	내 용
분양가 (기준층 기준)	•4억 5천만 원	
대출	•독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출 80%	
실 입주금	•7천만 원대	
파격혜택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확장 무상 •가전 옵션 무상제공 등 +α(한시적 적용)	

귀한 소형 아파트 갭투자 6천만 원대로 재테크, 시세 차익은 “엄”	품 목	내 용
분양가 (기준층 기준)	•5억 1천6백만 원	
전세 보증금	•4억 4천만 원(예상)	
실 투자금	•6천만 원대	
파격혜택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확장 무상 •가전 옵션 무상제공 등 +α(한시적 적용)	

월세·전세·이사 걱정 끝! 실 입주금 7천만 원대로 내집 마련, 지금이 기회! 문의 전화 | 02)876-4004

10명 중 7명, 교세 유지·성장 전망 “어렵지만 소명감 갖고”

기감 동부연회 소속 목사·장로 대상 목회 설문조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의 강원도 지역 연회인 동부연회에 소속된 목사·장로들을 대상으로 목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동부연회는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이 연회 목사·장로 421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담임목사 202명, 담임전도사 8명, 부목사 35명, 장로 176명이었다.

◆교회학교 없는 교회 거의 절반
이들의 교회 규모는 30명 미만 5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49명 16.5%, 50~99명 15.5%, 100~299명 12.4%, 300명 이상 4.7% 순이었다.

연령별 출석인원 비율은 70세 이상 27.6%, 60~69세 22.0%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49.6%로 절반 정도였다. 50~59세 16.6%, 40~49세 11.8%, 30~39세 6.7%, 19~29세 6.8%, 10대 이하 8.6%로 3040세대 비율은 18.5%, 그 아래 연령층은 15.4%로 비교적 낮았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예배 회복률은 장년층에선 평균 88.9%였지만, 교회학교는 평균 86.1%로 조금 더 낮았다. 현금회복률은 94.9%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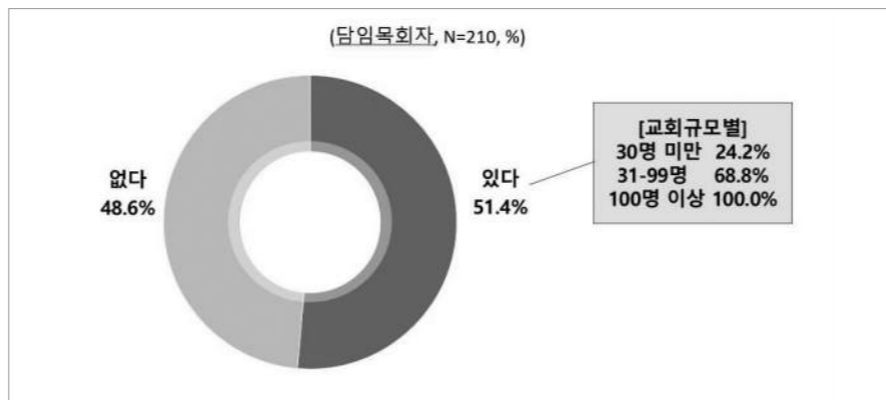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48.6%로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교회학교가 성장하

지 않는 이유(1+2순위)로는 “출산을 저하가 52.6%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부모의 교회학교에 대한 인식 부족’ 32.4%, ‘학원/공부로 인한 학생들의 시간 부족’ 29.1%,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 부족’ 16.6% 등의 순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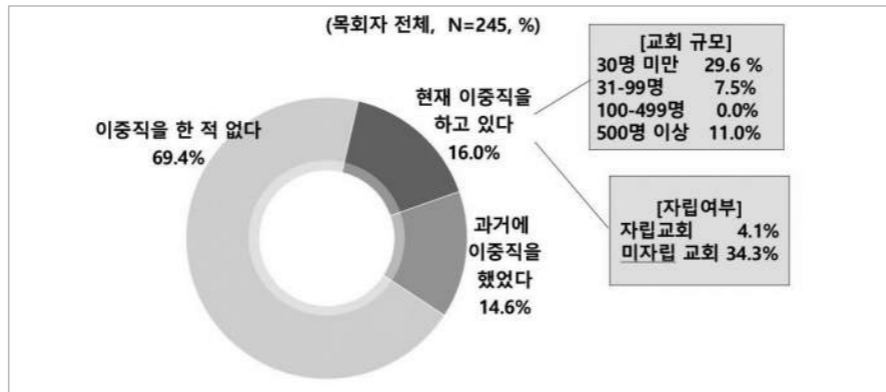
◆교세 전망 및 목회 만족도
향후 교세에 대한 전망은 ‘성장할 것 같다’ 44.6%, ‘지금을 유지할 것 같다’ 22.5%로 67.1%는 교세 하락을 전망하지 않았다. ‘감소할 것 같다’는 29.3%였는데, 그렇게 전망한 이유(1+2순위)로는 ‘지역의 인구가 줄어서’(53.4%),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서’(34.9%) 등이 꼽혔다.

목회 만족도도 ‘만족한다(매우+약간)’가 59.4%로 ‘만족 못한다(전혀+별로)’ 12.9%보다 훨씬 더 많았다. 목회에 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의 만족 이유(1+2순위) 중에선 ‘목회가 하나님의 소명임’이 75.8%로 가장 많았다. 불만족 이유로는 ‘나의 목회적 자질/능력이 부족해서’(62.4%),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나타나지 않아서’(50.1%) 등이 있었다.

◆이중직
목회 외 다른 일을 하는, 이른바 이중직을 하고 있거나(16.0%) 과거 그것을 경험(14.6%)한 목회자의 비율은 30.6%였다. 대부분의 목회자(69.4%)는 이중직을 한



교회학교 존재 여부 ©목회데이터연구소



이중직 수행 여부 ©목회데이터연구소

적이었다.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57.9%)은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이중직을 그만 두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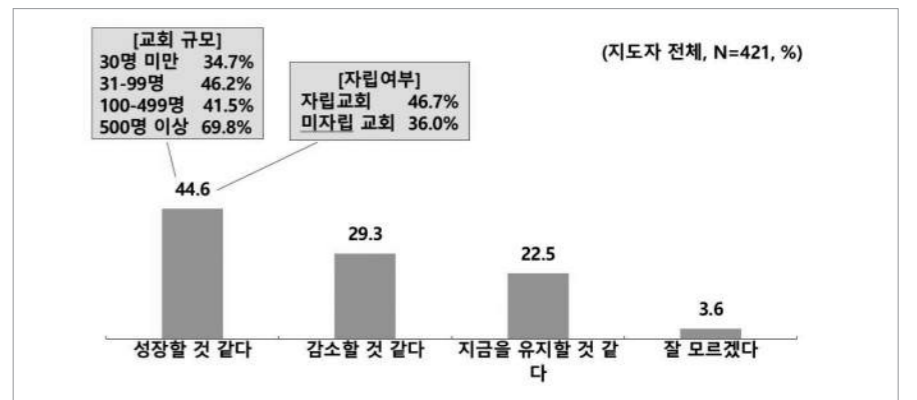
이중직 목회에 대한 의견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불가피하다’가 46.6%로 가장 많았고, ‘목회자의 새로운 유형이

므로 적극 수용한다’ 25.7%, ‘대체로 반대한다’ 25.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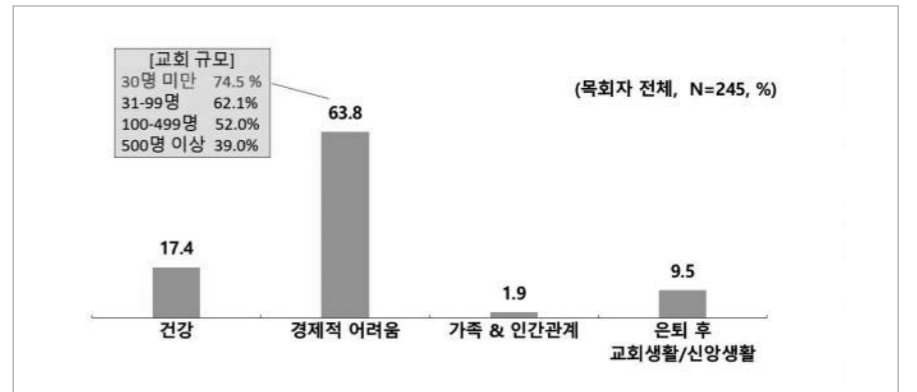
◆경제적 상황
조사 대상 교회들의 자립 여부는 자립 교회가 58.3%, 미자립교회가 41.7%였다. 미자립교회 담임목회자와 장로들의 대부분(78.9%)은 교회 자립 예상 기간으로 ‘기약이 없다’고 답했다.

목회자들은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63.8%로 가장 많이 꼽았는데, 30명 미만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선 74.5%가 이렇게 답하는 등 작은 규모 교회의 목회자일수록 이것을 걱정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은퇴 준비 사항으로는 ‘국민연금’ 77.7%, ‘교단 은급제단 가입’ 48.3%, ‘개인



향후 교회 교세 전망 ©목회데이터연구소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점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금/개인저축’ 26.5%, ‘노후준비 수단 없음’ 14.8%, ‘주식투자/펀드’ 5.2%, ‘부동산 투자’ 3.8% 순으로 응답했다. 목회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교회의 비율은 50.2%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명감”

이번 조사를 실시한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동부연회는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는 성인 출석 인원 30명 이하 교회가 59.3%나 차지하는 소형 교회가 많은 연회로서 이번 조사에서는 미자립 교회가 40.2%로 조사되었는데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는 대부분(78.9%)이 언제 자립할지 기약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목데연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9.9%

의 목회자들의 소명식은 흔들림 없이 목회에 임하고 있으며 44%의 연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아직 거두지 않고 있다”며 “현재 목회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59.4%, 만족 못한다는 비율이 12.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명감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목회자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21.5%나 되고 월 사례비가 전체 평균이 183만원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미자립교회는 더 열악해서 월 평균 사례비 평균이 41.3만원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한 교단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솔로몬-이집트 공주 ‘정략결혼’과 에스라서 ‘혼합결혼 파기’ 고찰

하경지·김사무엘 박사,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제51차 학술대회서 발제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회장 김창대 박사)가 최근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최순봉)에서 제5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유선명 박사(백석대)를 좌장으로, 하경지 박사(서울한영대)가 ‘솔로몬의 이집트 공주의 정략결혼에 대한 고찰’ 주제의 발제, 박유미 박사(안양대)가 논평했고, △김진수 박사(합신대)를 좌장으로, 김사무엘 박사(총신대)가 ‘에스라서의 토에바를 통해서 본 혼합 결혼 파기의 의미’ 주제로 발제, 안석일 박사(총신대)가 논평했다.

◆솔로몬-이집트 공주의 정략결혼

먼저, 하경지 박사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 후기에 통치했던 솔로몬은 이집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찬란한 시대를 누렸다. 한편으로 그는 수많은 잠언과 노래 및 성전 건축을 통해 놀라운 지혜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관계를 맺었다는 안타까운 특징도 지닌 인물”이라며 “특히 그의 아내 중에서 ‘파라오의 딸’이 유난히 반복해 등장한다는 점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고 했다.

하 박사는 “고대로부터 이집트 신왕국, 특히 아마르나 시대에 절정에 올랐던 정황을 제3중간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더군다나 수사학적 과장일수도 있는 한 파라오의 단 한마디 말을 지나치게 일반화 내지는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솔로몬 시대에 해당하는 이집트 제3중간기, 특히 21-22 왕조 때의 정황과 사례들에 비추어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제51차 학술대회 기념 사진.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이어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성경은 솔로몬의 이집트와의 결혼동맹을 전혀 영광스러운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집트와의 긴밀한 관련성에 대해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한다(왕상 3-11장)”며 “열왕기 저자는 유독 이집트 공주와의 결혼만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솔로몬과 파라오(또는 이집트)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에 집중하며, 솔로몬이 무분별한 국제결혼이 결국 이상승배의 죄로 연결됨을 드러낸다”고 했다. 또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계가 안치되어 있는 성전으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엄격히 분리시킬 정도로 경건한 왕이었다는 점을 일차 독자(인) 포로 귀환자들에게 전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경의 내용을 외적 자료에 의존하여 검증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성경 외적 자료에 대한 관대하면서 성경의 내용에는 그렇지 않은 것은 학문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성경 자체의 문예적 특징에 귀 기울일 때 본연의 의미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에스라 9장에 나타난 혼합 결혼의 파기 이유

다음 두 번째로 발제한 김사무엘 박사는 “에스라서 9장에 나타난 혼합 결혼의

파기 이유는 인종적 이유인 이우나 사회경제적 이유가 아닌 이상 승배의 죄로부터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는 신학적 이유였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먼저, 에스라서의 저자가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9장 1절의 이방 족속들의 명단은 혼합 결혼 파기 이유가 인종적 이유가 아닌 신학·신앙적 이유라는 것을 나타낸다”며 “에스라서의 저자는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드러내는 명단 제시를 통해 인종적 이유가 혼합 결혼 금지의 이유가 아니며, 혼합 결혼이 가져오는 이상 승배의 위험이 혼합 결혼에 대한 금지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어 “물론 레위기의 배경 가운데 사용된 핵심 단어 ‘역겨운 일과 상응하여 나오는 죄, 더러운, 불결함 등의 단어들을 통해 혼합 결혼 파기 이유가 이상승배와 관련된 신학적 이유였음을 나타낸다”며 “셋째로 역겨운 일과 함께 사용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한 불신실을 가리키는 단어인 ‘죄, 레위기의 속전제와 연관되어 죄를 가리키는 단어인 ‘죄책, 죄악’ 등의 어휘들은 이상승배적 혼합주의자들과의 혼합 결혼이 죄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 인터내셔널 |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 판토스 |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 신소재 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 유리 솔루션 LX 글라스

LX
LINK FOR NEXT

“어둠과 거짓, 죽음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인천 교계, 31일 새벽 부활절연합예배 드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주승중 목사, 이하 인가총)가 31일 새벽 인천 하늘꿈교회에서 ‘생명의 부활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2024년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날 부활절 예배 1부에서는 정일량 목사(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총회장 주승중 목사의 대회사, 신윤진 목사(공동회장)의 대표기도, 김영수 목사(공동회장)의 성경봉독, 김의철 목사(송도 가나안교회)의 설교가 진행됐다.

대회사를 전한 주승중 목사는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는 부활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을 바꾸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역사는 바뀌었고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었다. 따라서 모든 역사를 바르게 만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이자 축제의 절기”라고 했다.

이어 “부활절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대의 절기이자 기쁨의 절기인 이유는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공동체인 교회는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부활절을 지키는 가운데 선포하고, 재현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부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부활절절기가 시작되는 부활주일의 맞이하여 인기산 상하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마태복음 28: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김의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을 때 세상

은 온통 어둠으로 변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날이 올 줄 상상하지 못했다. 십자가에 못박히기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러나 얼마까지 않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었고 매맞고 가야바의 뜰에서 심문당하셨다. 사탄에 의해 꾸며진 음모에 죽어가고 계셨다. 분노한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다. 그렇게 주님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었다. 가장 낙담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그 소식에 의아하며 로마의 권력 앞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따라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은 승리이며 이 승리는 거짓을 이긴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결코 거짓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타락한 권력에 두려워 숨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이요’라고 선포하셨다. 어떤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라도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부활의 교훈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권력을 이기셨다. 유대사회는 율법주의 사회, 종교 사회였다. 그런데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율법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법은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주님의 부활은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를 이기셨다”며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탐욕을 버려야 한다. 탐욕은 영원하지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가 31일 새벽 인천 하늘꿈교회에서 ‘생명의 부활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2024년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다. ©최승연 기자



못한다.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목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부터 탐심, 약, 거짓을 버리길 원하며 진리를 따르길 바란다”며 “교인은 정의로워야 하며 옳아야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지만, 결국 진리가 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활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를 이겼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악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질책하는 자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였다. 유대인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고 진실을 묻으려 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주님 부활 사건의 진실을 막으려했던 자들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며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 어떤 어둠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 진리를 지키며 승리를 외치길 바란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충성을 앞두고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올바른 지도자를 투표해야 한다. 부활절을 통해 주님의 권세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언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김진욱 목사(공동회장)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인천의 성장을 위하여, 김중국 목사(공동회장)가 ‘공정한 종선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김규원 목사(공동회장)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광식 목사(동구연합회장)가 ‘다문화세대의 믿음과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김요한 목사(서구연합회장)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들의 철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기 기도했다.

이어진 2부 ‘축하와 영광의 시간’은 신윤대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사, 전명구 감독(경총총회장), 신덕수 목사(증경총회장)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139년 전 오늘 부활절 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도착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첫 기도가 조선 백성

들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였다. 그 역사가 현실이 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또 복음의 나라를 만들었다. 인천은 이후 교회, 교인 중심이 되어 1902년 처음으로 하와이에 이민을 갔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며 “인천광역시와 교회의 역사 배경에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의 복음의 선교 씨앗이 있었다. 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심한 갈등, 분열이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천 시민 300만 명과 100

만 성도가 함께해서 자랑스러운 인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소망한다”고 했다.

전명구 감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증인은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날 부활의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러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며 “신앙인으로서 부활의 현장감이 있는 자리에 나와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신 것을 격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진유신 목사(직전총회장)의 축도와 사무총장 광두의 목사의 내빈 소개로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학부모 단체들 “음란도서인데도… 간윤위가 편파 심의”

1일 전주 간윤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예고 “현 위원들 해촉하고 다시 위원회 구성해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들이 내달 1일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 앞에서 간윤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간윤위가 음란유해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윤위는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결국 법체처의 유권해석을 받게 됐고, 법체처가 그해 12월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

간윤위는 학부모 단체들이 심의를 요청한 66권중 일부를 심의했으나, 모두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간윤위가

“심의를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고 비판한다. 청소년보호법이 관련 조항에서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간윤위가 그런 묘사가 있는 도서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 간윤위가 이미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정된 도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해당 도서에 대해 유해성 없음이라는 비상식적인 판정을 한 것이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재 간윤위에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이 위원일 뿐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성평등이란 개념은 양성평등이라는 한법적 개념이 아닌 아동의 조기성

애화를 조장하는 매우 음란한 이념을 의미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한 명은 ‘출판학회 학술이사’이다. 그런데 대부분 학회는 실무자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판학회의 이사는 출판업계 관련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지만, 해당 위원은 활동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불상의 한 위원이 2024년 1월 19일 간윤위 회의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역사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왔던 역사이며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음’이라는 위원회의 목적과 상반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현 위원들을 즉각 해촉하고,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추천을 받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새 생명·희망 퍼지길”… 전국 교회·성당서 ‘부활절’ 예배·미사

31일 부활절을 맞아 전국 성당에서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미사가 열린 가운데, 전주교 서울대교구는 주교좌인 명동대성당에서 낮12시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를 진행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앞서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연결 지어 준 사건’이라며 ‘부활

의 새 생명과 희망이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도 따듯이 퍼져가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따듯이 퍼져나가기로 기도한다”고 밝혔다.

전주교 서울대교구는 30일 오후에는 명동 대성당에서 예수 부활의 밤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미사’를 열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에서 빛의 예식이 거행되고 있다. ©뉴스시스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 KB국민카드 |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로 결제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페이

KB Pay

준법감사인심외필제 230609-02066-ADP (23.06.09)

KB 국민카드

칼뱅의 죽음 개념 “죄에 대한 형벌, 영혼과 육체의 분리”

김선권 교수, 최근 ‘칼뱅의 죽음관’ 주제로 메시지 전해



김선권 교수(장신대사진)가 최근 온신학TV에서 ‘칼뱅의 죽음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죄에 대한 형벌이라 말할 수 있다”며 “칼뱅에 따르면 죽음은 세상이 처음 창조된 상태에 속한 성질이 아니었다. 아담은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칼뱅의 ‘피기우스의 자유의지 논박’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본성을 본질의 최초의 특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물에 부여하신 영원한 조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혼이 본성상 죽을 운명이라는 그러한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이거나 부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창세기 주석에서도 ‘아담의 몸에는 결점이 전혀 없었으며 그렇기에 그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며 “최초의 인간은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것이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지어졌고, 이것은 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의지, 즉 자유의지로 타락했다. 타락 후 모든 인간은 이제 아담 안에서 그의 신분을 상실했다. 죄로 인해 몸은 육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고, 영혼은 영적 죽음을 맞게 됐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며 “칼뱅의 죽음은 자연적인 결과라 아니라 타락이 가져온 우발적 성질,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타락 후 죄로 인해서 형벌로 주어졌다”고 했다.

그는 “칼뱅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면 어디서 왔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영혼수면론 논박’에서도 ‘죽음이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 때, 그들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생했을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형벌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은 천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같은 책에서도 나는 본래 죽음이란 그것이 죄의 형벌과 저주이기 때문에 악인을 인정하며, 또 죽음은 한편으로 황폐와 공포가 가득하고 다른 한편으로 죽음은 그것이 노하고 벌하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느끼는 자들을 최후의 절망까지 밀어붙인다고 고백한다’고 했다.

이어 “칼뱅은 죽음을 진노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이해했다”며 “창세기 주석에서 인간 창조가 세 가지 점진적 단계로 되었음을 칼뱅은 주장했다. 첫째로 인간 몸이 땅에 먼지로 지어졌다는 것이며, 둘째로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가지게 하는 영혼이 결합되며, 셋째로 하나님은 영혼에 그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다. 즉 영혼의 불멸성을 주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칼뱅에게서 인간 창조의 핵심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다. 이 관점을 죽음에 적용하면 죽음은 인간 창조의 반대인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며 “죽음은 단지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야기한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부터 영혼의 떠날 것으로 칼뱅은 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칼뱅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멸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에서 주장하는 영혼 불멸과는 다르다”며 “칼뱅은 이 주장이 성경에 있다고 마태복음을 주석하며 말했다. ‘몸에 부활에 관하여 무지한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에 대해 말이 많지만 내세의 삶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어리석고 우매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들의 생각이나 견해는 아무런 무게를 지닐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삶이 부활 소망에 달려 있고, 몸과 분리된 영혼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영혼의 불멸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칼뱅은 잘못된 헬라-이원론적인 인간 이해나 영혼 불멸론을 반대했다”며 “그는 성경이 인간 영혼의 불멸 내지 죽지 않는 부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 때부터 죽거나 썩어지지 않는 영혼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러한 영혼의 불멸성을 영혼 자체가 가진 그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 영혼에 부여한 것이었다고 칼뱅은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 불멸은 영혼 자체가 가진 능력이냐 성질보냐는 하나님의 영이 그 불멸을 붙들어 주신다고 칼뱅은 말한다”며 “칼뱅에게 영혼 불멸의 근거는 성경”이라고 했다.

또 “칼뱅에게 신자의 죽음은 죄가 죽는

것이며 양면성의 종결”이라며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가 있다. 신자가 육체의 집을 벗어 버릴 때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종식된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의 종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죽음이 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한다. 이 같은 사상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불신자의 죽음은 성경 말씀대로 죄에 대한 결과였다”며 “신자도 역시 죽지만,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게 한다는 것이다. 죽음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하지만 신자는 죽는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무엇인가”라며 “바로 영원한 곳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이다. 신자가 죽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문이기에 삶과 죽음이 이미 그리스도와와의 교제

전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죽음이란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출구이고, 우리가 그 출구를 통해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신자와 불신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차이는 달라진다”며 “불신자들은 살고 있더라도 죽음을 경험하며, 신자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칼뱅의 죽음 사상은 두려워하면서도 위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의인으로서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된다는 점에서 위로가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칼뱅의 죽음의 개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는 것이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서의 죽음이며, 이것은 죄가 완전히 죽고 신자의 양면적인 실존이 종결되는 것이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지동 기자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의 형성과 관계돼”

최창국 교수, 영적 예배의 참 의미에 관한 메시지 전해

최창국 교수(백성대 실천신학사신)가 29일 복음과 도시 홈페이지에 ‘영적 예배의 참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성적으로만 번역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모기코스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비유적’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하며 “즉,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에서 몸(σώμα)을 비유적이고 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기코스도 비유적이고 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몸을 전인적이고 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기코스도 영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울은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 즉 전인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명사 ‘예배’는 ‘섬김(service)’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의식(儀式)과 의무라는 뜻 모두를 내포한다. 따라서 여기서 예배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예배 의식이나 행위만이 아니라 삶과도 관계된다”며 “이 단어의 이중적 의미는 우리의 예배 의식과 이상의 삶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뿐 아니라 삶의 행동과 봉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형태들을 상기시켜 준다”고 했다.

또 “바울은 영적 예배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과 있다”며 “필립스의 역본은 그 구절을 이렇게 설명한다. ‘주변 세상이 당신을 틀에 박지 못하게 하라’(롬 12:2). 따라서 영적 예배는 이 세대의 물질주의와 부도덕성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수단을 거부하는 삶과 관계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중요한 것은 바울 시대를 전후한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그 시대의 물질주의와 부도덕한 삶을 거부하고 거룩한 또는 건전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며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를 강조한 바울도 거룩한 삶의 실천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관계시킨다”고 했다.

이어 “깊은 차원에서 거룩한 삶이 거룩한 제사, 즉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다”며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삶의 형성과 관계된다. 영적 예배는 어느 한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주일 예배도 영적 예배에 포함된다”고 했다.

아울러 “영적 예배가 거룩한 삶과 관계된다는 의미가 주일마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와 영적 예배는 서로 순환 관계 안에 있을 때 서로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지동 기자

NCSI
국가고려만족도 (NCSI)
아우터부흥 10년 연속취
(2014~2023)

영장을 완성하다

MOUNTAIN JACKET

Waterproof

Breathable

M'S GTX MOUNTAIN 3L JACKET
559,000

제품 문의 대리점 (02) 940-1158 백화점 (02) 940-1169 ■ 공식 온라인 스토어(www.thenorthfacekorea.co.kr)는 인터넷에서 노스페이스를 검색하세요.

“부활, 죽음·허무 극복하고 생명과 희망의 길 열어”

살롬나비, 2024년 부활절 논평 발표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살림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2024년 부활절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실에 우리 삶과 실존이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부함과 최소한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목도했다는 분명한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사건을 제자들이 목도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이라며 “이것은 부활사건이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 사실의 차원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준다”고 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삶의 허무를 극복하는 사건”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몸의 살아남을 넘어 죽음 자체가 더 이상 우리를 허무로 밀어붙일 수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삶을 위협하는 허무 극복의 사건”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를 죽음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며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심

자체가 세상의 종말이며(막 1:15). 그분의 오심을 통해 자연의 질서는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들은 “타락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서는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모두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창 3:19)”이라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시작된 종말은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질서를 깨어 부수고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죽지 않으며, 또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통해 생명의 포기를 넘어 생명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극복이고 허무에 대한 승리라면, 이제 우리는 삶의 고통과 무의미할 때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죄 됨을 우리 사회에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 중심의 생명 사상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선언해준다”며 “죽음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희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희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희망이란 우리의 욕망과 욕정을 통해 나타나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나 다른 생명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과 기준이 되는 희망이며, 오직 그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한 신뢰”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그리고 그러할 때에만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삶의 허무를 극복하게 하고, 생명의 포기를 넘어 생명의 희망으로 진입하게 하며, 부활의 사건이 인간을 넘어 전체 생명으로까지 확장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피조물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롬 8:22).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은 이제 인류의 구원과 부활을 넘어 지구촌 전체 생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것을 실현시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나를 내어주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활과 생명의 희망은 이제 우리에게 지구촌의 전체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나라 위해 기도한 기독교인이 투표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22대 총선 투표 참여 독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가 진행하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에 전국 교회가 호응하고 있다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29일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은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와 “투표하는 당신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 기독교 투표참여 10대 지침’을 마련해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거 후 국민화합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는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참여 공정선거 협업단체로서 캠페인을 전개해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KBS를 비롯 19개 단체가 참여했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는 9개 단체,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는 6개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업사업 단체로 선정되어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참여 공정선거 협업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캠페인 홍보물의 색상과 문구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전국 시군과 해외 성시화운동본부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가 시무하는 목포 하당제일교회, 부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승민 목사가 시무하는 부천 원미동교회를 비롯한 전국 교회들이 투표참여 및 공정선거를 결의했다. 태백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대석 목사는 태백 시내에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제작한 홍보물을 부착했다. 평택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8일 제14차 정기총회에서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이밖에도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 유현형 목사가 시무하는 논현주안장으로 교회를 비롯한 성시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도 교인들에게 투표참여와 선거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83.3%)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명 중 7명 이상(76.5%)이 ‘반드시 투표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조사 결과(81.2%)보다 2.1% 증가했다”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를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선거관위가 투표참여 의향을 묻은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로 나타났다”며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29세 이하 52.3%, 30대 65.8%, 40대 76.9%, 50대 84.2%, 60대 86.8%, 70대 이상 9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제 투



최근 평택성시화운동본부 제14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평택성시화운동본부

표율은 66.2%였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50대, 60대, 70대 투표의 향은 무척 높는데, 젊은층은 투표의향이 낮은 것은 나타났다”며 “부모세대가 20~30대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는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기회는 4년에 한 번 오는 총선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기회이다. 그래서 높은 가치관과 윤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모두 투표를 해야 한다. 기

독교인은 반드시 투표하는 모범 시민임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은 국민의 권이자 의무이다. 투표권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이다. 유권자가 투표권을 포기하고 민주주의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 크리스천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봉, 서울역 쪽방 화재 피해 주민들 위로

병원비 및 위로금 전달

한국교회봉사단(총재 김삼환 목사, 이사장 오정현 목사,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이 부활절을 앞두고 최근 서울역 쪽방 화재 피해 주민들을 찾아 위로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후암로 소재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로 인해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은 주민은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으며 같은 층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임시 거처로 대피했다.

한교봉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주민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입원 중인 화상



한교봉이 부활절을 앞두고 28일, 서울역 쪽방 화재 피해 주민들을 찾아 위로했다. ©한교봉

전문치료병원의 사회사업팀과 연계해 치료비 일부를 예치했고, 28일 오후 남대문쪽방상담소(소장 박종태)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주민 4명에

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남대문쪽방상담소 박종태 소장과 동자동 성민교회의 이성재 목사가 함께했다. 한교봉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는 “이

번 화재 사고가 상당 부분 음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남대문 쪽방촌에 위치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중독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며 “동자동 소재 성민교회와 지역상담소, 한교봉 3개 기관이 연합해 이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실무자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교봉은 지난 2011년부터 설날, 추석, 성탄 등 절기에 쪽방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 매년 부활절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시민운동연대, 총선 앞두고 주요 정당에 정책 제안서 전달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기독교시민단체 및 기독교활동가 등이 모인 '기독교시민운동연대'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한 '정책 비전 제안서'를 주요 정당에 직접 전달했다고 기독교시민운동연대가 28일 밝혔다.

기독교시민운동연대는 이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가나다 순) 당사와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해 해당 제안서를 전달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고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민생 문제를 바른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책 비전 제안서’에는 10개 분야(교육, 노인복지, 생태환경,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노동, 자살예방, 이주난민, 정치개혁, 청년에 대한 시급하고 중요한 50개의 정책이 담겨있다.

앞서 기독교시민운동연대는 지난 1월 4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분야별 제안 정책과 개혁 방향성을 발표하는 ‘정책비전 제안 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현아 기윤실 사무처장은 “이러한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정치권이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필요를 수



기독교시민운동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 전달한 '정책 비전 제안서' ©기독교시민운동연대

렴하고 반영할 뿐 아니라, 기독교 유권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하고 토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윤실은 이날 ‘2024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기윤실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국가와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과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유권자들의 바른 분별과 기도가 필요하다”며,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정과 교회, 지역 공동체에서 나누고 토론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 제안서’와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체크리스트’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교인 가혹행위 방치 목사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소1-2부는 최근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진행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인분 먹이기, 40km 걷게 하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목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훈련 조교 리더 2명도 강요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증거가 풍부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 측은 “자발적 훈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대표는 “수십년간 해온 일을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이민자들의 기록을 모아 한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야”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이사장 강조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이사장(상임대표 총회장)은 2012년 10월 16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33개국 한인지도자들이 모여 설립한 세계한인재단 창립식을 개최했다.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으로 매년 10월 5일 대한민국 법정기념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미주방문단을 결성해 참석했고 한인디아스포라 지구촌 한인지도자들을 설득해 임의단체로 출발했다.

박상원 이사장은 “해외에 나가 있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성공을 이룬 이민자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기록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자료가 소실되고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책으로도 집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밖에 살고 있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는 인권을 출발한 한인으로

각 개인의 뿌리를 찾아 족보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인천에서 연구와 발굴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이를 위해 성공한 이민자들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상원 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제2회 대한민국 미주한인의 날 기념대회’를 조선회관에서 개최했다. 제1회 기념대회는 2023년 1월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미주한인인민 12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바 있다. 박회장은 “지난 1월24일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대한민국 미주한인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500여 명이 연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했고 국내에 미주한인의 날을 알리고 싶어 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은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하원에서 2004년 1월 12일 통과되어 선포되었고 미국 연방의회는 2005년 12월 13일 하원에서,

16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 제정결의안을 통과시켜 법제화했다. 한인들이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 이주해 성공한 이민자들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상원 회장은 “자료가 소실되고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책으로도 집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밖에 살고 있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는 인권을 출발한 한인으로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어 2005년 1월 13일에는 LA월셔어 그랜드호텔에서 제2회 행사를 열었다.

그는 “미주한인의 날은 미주한인재단의 중심이 돼 제정을 이끌어 냈지만, 이날을 기념하고 그 뜻을 살리는 것은 미주한인사회의 몫”이라면서, “미주지역에 있는 200여 한인회가 지역별 기념식 행사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이민한 우리 동포들 가운데 현자에서 입지전을 쓴 인물들이 많습니다. 타계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살아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국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라면서, “지구촌 곳곳에 살고 계신 한인들의 뿌리를 찾아 한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한민족이 세계 인류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야 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역사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A 월셔그랜드호텔에서 제1회

김민선 기자

“적진을 향해 달려 들고 벽을 뛰어넘는 은혜”

천한 목사 로댐 장로교회 주일예배 설교 “벽을 뛰어넘는 은혜”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로댐 장로교회에서 천한 목사(인턴 예비교회 원로목사, 한장총 제41회 대표회장)가 3월 24일(주일) 주일 예배 시간에 “벽을 뛰어넘는 은혜”(시편 18:28-3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천한 목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벽들이 있다. 전 세계 OECD 국가 세계무역 10대국이지만 우리 안에는 정치적인 서로의 첨예한 벽이 있다”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며칠 전 딸과 아집QT를 하며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화 내용을 나누었다. 딸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한 여성이 자살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놀림이 있다고 했다.

천한 목사는, “나는 진정한 이웃으로 사는가, 혹시 우리가 이웃을 잃고 사는 지 점검해 봐야 한다. 사람들은 정말 많은 벽이 있다. 서로서로를 견제하며 살아가는 유익한 재료도 되지만 있어서는 안 될 벽이 너무 많다”며 “우리는 분단 70년의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철조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이다”라고 했다.

그는 “죽음의 벽, 죄의 벽, 난공불락의 벽이 한둘이 아니지만 다윗은 적진을 향해 달려 들고 벽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했다”며 이 벽들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 본문의 캐릭터는 사슴이다. 사슴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위와 산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 시한부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처럼, 양처럼 사방의 골짜기에서 나를 꼬집어 내셨고 벽을 뛰어넘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천한 목사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의 힘이였다. 환란이나 적신이나 어떤 상황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그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영성이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고, 오늘의 한국 교회화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짐을 보



천한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41대 회장, 인턴 예비교회 원로 목사) ©기록일보

게 된다”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기도할 줄은 다 안다. 기도의 의식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천한 목사는 “복종의 가장 큰 복은 전 하위복이란 복”이라며 “모든 상황을 바꾸고 모든 벽을 넘게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반전하게 하시는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했다.

“벽을 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은 임이 마르고 숨막히는 죽음의 사선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힘이고 양식이고 능력이 되었고 고백한다. 다윗은 환경을 보

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다. 고난은 이겨야 한다. 뛰어넘어야 한다.”

천한 목사는 위로의 메시지로 설교를 마쳤다. “얼마나 힘들고 삶이 어려운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 산성 요새요 구원의 뿔이다.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어떤 벽도 뛰어넘게 하는 힘은 여기서 온다.”

LA 베이직교회 창립 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 예배

LA 베이직교회(담임 이선기 목사, LA Basics Global Methodist Church)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4월 7일 오후 4시에 엘에이에서 열린다.

LA 베이직 교회(LA Basics Global Methodist Church)는 2023년 12월 3일(첫 주일)에 월셔글로벌장로교회(Wilshire Global Methodist Church)라는 이름으로 UC Academy 학원 야외 공간에서 약 5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

리며 시작되었다.

LA연합장로교회와 월셔연합장로교회 소속이었던 한인 성도들이 연합장로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교단의 반성 경적 정책, 동성애 합법화 흐름에 반대하여 이선기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이 교회를 개척했다.

주소: 1304 S. Cochran Ave. LA, CA 90019 / WWW.labasics.org / 213-255-0521

김민선 기자

시애틀 형제교회, 심형진 목사 초청 찬양 집회 개최

전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싱턴 심형진 목사 초청 찬양 집회가 오는 4월 7일(주일) 오후 2시부터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 바셀캠퍼스에서 열린다.

그동안 여러 차례 찬양 집회로 넘치는 은혜를 노래해 온 심형진 목사는 이번 찬양 집회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할 전망이다.

찬양 집회를 준비하는 심형진 목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찬양 집회를 통해 뜨겁게 역사하셨던 은혜가 이번 집회에도 넘칠 것을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심형진 목사는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예배 인도자로 활동하며 ‘은혜로다’, ‘아름다우신’, ‘예수 닮기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등 워싱턴 50여 곡을 작사, 작곡하는 등 국내외 캠퍼스 워싱턴의 부흥을 이끌었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노란우산 남보라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비위원회 심의(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입니다. (예금보험인사) 노란우산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부 차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까지도 납부공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으로 흘러가 두 나무 함께 자라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안보특강’ 전례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이자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104)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고 함께 사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세라며 “우리나라도 이념 대립과 국민 분열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실용주의 정책을 쓰는 열린사회가 되어 평화로운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최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나라사랑 애국단체연합대회’의 안보특강에서 김 교수는 평화로운 통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북한 동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는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다. 첫 번째는 모든 식민지는 독립시키고 세계에 식민 지배는 없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나라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일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2차 대전이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국의 처칠 수상은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3차 대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때)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여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처칠은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출발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안정된 사회나 평화로운 사회는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없지만, 혼란기와 어려울 때는 공산주의를 침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답에서) 스탈린, 처칠, 루스벨트가 항상 셋이 앉았는데, 처칠은 스탈린이 전쟁이 끝날 때 어떻게 세계를 공산화할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제1회 회생을 겪은 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을 겪은 우리였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안정되기 전, 스탈린과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침범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세계 역사는 냉전 시대로 들어갔고, 50년간 사상 전쟁은 계속돼 왔으며 “냉전 시대를 겪고 나니 선진 국가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냉전체제가 계속돼선 안 되고 계속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보와 보수 세력이 공존하는 것이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행하게도 러시아, 중국, 북한, 중남미 작은 나라들은 아직도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 격차가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점령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지금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선진 국가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는 공존할 수 있다. 정책만 바뀌면 된다.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보수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정책을 택하게 되고, 진보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같은 것을 택하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보수와



김형석 교수가 안보특강을 전하고 있다. ©이희희 기자

진보가 공존하는 것은 열린사회가 되는 것이고, 함께 살고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온다는 것이다. 그 사상의 대표적인 기관이 유엔”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교수는 특히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이승만 박사를 통해 자유주의, 박정희 대통령을 통한 경제 기반을 닦고, 이제 정권 중심의 권력 사회는 끝나고 후진 국가에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변화가 왔다”며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길을 열었으니 다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북한동포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통일, 전쟁 없는 통일, 그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것을 제일 처음 정치적으로 시도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남북 경제 격차가 심하니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어서 경제 수준이 비슷하게 되면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최소한 15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남한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북한은 경제가 아닌 군사력을 키웠다. 국민은 더 가난해지고 경제력은 올라가지 않고 군사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뜻과 어긋나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너무 몰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다음 노무현 정권이 들어올 때 제일 큰 변화는 잠재적으로 나타나지 않던 죄과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권의 일부는 완전히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다. 선택하라고 하면 북한에 가서 살 사람들이 여기서 운동권을 만드니까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동안 정말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노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대만보다 많이 앞서고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경제 정책 등 모든 것이 운동권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경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때부터 있던 국민 분열이 10년으로 합할 수 없는 분열이 되니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분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잃으면 안 되니 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이 확실하고, 그 길을 택해야 한다”며 “정치 노선이 다르지만 제 3의 길을 찾아 앞으로 가야 한다. 영국, 유럽, 미국 등의 소위 정치 실용주의를 택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편한 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용주의 정책의 핵심은 투쟁이 없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린사회로 끝까지 함께 가는 사회”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동포와의 화해와 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큰 실책 가운데 하나가 북한 정권과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세계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 선진 국가도 아니다”라며 “천안함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선원 강제 복송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로 갚으려 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악은 선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된다고 하셨다”라며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더 소중한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일 본과의 관계다. 저는 윤 대통령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일본, 자유 진영과 손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교수는 “지금의 북 정권이 유지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동안 변화는 불가능할 것 같다. 제 생각에 짧게 봐도 30년 동안은 그대로일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북한 동포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북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두 번째는 인적 교류가 가능한 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민간인 문화적 교류를 가져야 한다. 모든 점에서 문화 교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도와주고 너는 도움받는다”고 하지 말고, 정당하게 북한이 경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다음이 외교적 정치이고, 군사 문제는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몰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높은 것이 있으면, 자연히 북한으로 가서 그 수준을 올려주게 돼 있다”라며 “그때는 두 나무가 함께 자란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북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같이 살 수 있을 때, 통일도 하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희 기자

코미디언 김학래 집사, (사)누가선교회 홍보대사 위촉

(사)누가선교회(대표회장 김성만)가 28일 (사)대한민국방송미디어연합회 대표회장 김학래 집사(오른쪽)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은 누가선교회가 주최하고 누가줄기세포병원이 주관한 가운데 롯데호텔본점점과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누가선교회는 앞서 26일에는 서울 여의대방로 충무빌딩 11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방송미디어연합회와 △국내외 의료봉사 △미디어 및 홍보 사역 △치과·피부과·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의료 사역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한 바 있다.

전 감서대학교 총장 박신배 목사의 사



코미디언 김학래 집사가 누가선교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맨 앞줄 왼쪽부터 박신배 목사, 김학래 집사, 김성만 대표회장 ©누가선교회

회로 진행된 위촉식에서는 김성만 누가선교회 대표회장이 김학래 집사에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이어 장기숙 시인이 축시를 낭독했다. 이희희 기자

김학래 집사는 이날 “저희가 꿈을 좀 크게 그렸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고아들과 어린이들의 웃음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다”며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인 나라인데, (전쟁으로 인해) 아이들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쟁터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갖다주려는데 금방 이뤄지지 않을 것이지만, 관련 단체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집사는 또한 “저보다 앞서서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것이 더 많이 축적된 여러분들을 만나 뵈게 됐다. 제 와이프가 귀사이고, 저는 집사인데 오를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희희 기자

KWMA 제4회 미션 콜로키움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신학과 선교’

안성호 고든대학 선교학 교수 강의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노랑진로 KWMA 세미나실에서 제4회 미션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신학과 선교’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 보스턴 고든대학의 안성호 선교학 교수가 초청돼 글로벌 디아스포라 사역의 현황과 실재를 나누게 된다.

안 교수는 성균관대 기계공학학과 학사 과정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대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선

교 현장에서 사역한 후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선교학 석사(M.A.), 영국 스토크랜드 에딘버러대학에서 세계 기독교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OMF 소속 선교사로 북미와 유럽에서 디아스포라, 난민,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다.

4월 15일까지 20명을 모집하며, 구글 링크로 접속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희희 기자



“호주, 성차별법 개정 움직임... 종교단체들, 종교자유 축소 우려”

호주법개혁위원회(ALRC)가 신앙 기반 학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호주의 종교 자유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보고서는 신앙 기반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을 해고하거나 퇴학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의 면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성차별법을 개정하라고 ALRC가 연방 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소수자 단체는 정부에 ALRC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종교 단체는 이 보고서를 종교 자유 침해의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다.

20개 이상의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단체 연합은 최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에게 보고서의 권

고 사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호주기독교학교연맹(AACS)은 이 보고서를 “호주의 신앙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권고안 채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ACS 집행관인 바네사 쉐은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과 호주 전역의 종교 자유 원칙에 선을 긋는 것”이라며 “이러한 ALRC 권장 사항이 채택되면 정부는 기독교 학교에 우리가 누구를 고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믿고 가르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무서운 선례를 남겼다. 호주인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은 누구인가?’이다. 그들(정부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다른 종교 단체나

조직에 지시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쉐은 문제가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발표 전 2주 동안 AACS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압도적 다수는 학교가 기관의 명확하게 명시된 가치와 가치를 지지하는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713명의 성인 응답자 중 80%가 학교가 종교적 신념과 행동에 따라 교사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드니 가톨릭 대주교인 앤서니 피셔(Anthony Fisher)는 현지언론인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에 논평을 통해 “이 보고서는 호주인

들이 모이고, 자유롭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고 경고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모여달라고 요청했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는 노동당이 연방 야당으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만 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공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알바니스 총리는 “호주인들은 문화 전쟁과 분열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이것이 앞으로 단합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당에 법안을 제공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과 군소 정당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우회하거나 법률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호주 녹색당의 데이빗 슈브리지(David Shoebridge) 법무부 대변인은 “녹색당과 무소속당과 함께 의회에서 이 일을 완수하려는 확고한 진보적 다수가 있는데 노동당이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는 것은 비극”이라며 “우리는 학생들이 뛰어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야당 부대표인 수산 레이(Susan Ley)는 “이 법안이 필요한 경우 상원위원회의 조사를 포함하여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학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인 10명 중 3명 “정기적으로 종교예배 참석”

미국인 10명 중 3명은 정기적으로 종교예배에 참석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20년에 비해 감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갤럽은 최근 ‘미국인의 종교예배 참석률 감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21%가 매주 종교 예배에 참석하며, 9%는 거의 매주 종교 예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1%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한다”고, 25%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고, 31%는 “전혀 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갤럽의 10년 전 보고서에서는 38%가 “매주 또는 거의 매주 참석한다”고, 20년 전 보고서에서는 42%가 “매주 또는 거의 매주 참석한다”고 답해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갤럽은 이번 연구를 위해 2021년, 2022년, 2023년에 전화로 실시한 설문조사, 이전 샘플은 각각



©Unsplash/Lamos Aritonang

종교별로 살펴보면 물문교에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 신자는 44%를 차지했다. 이슬람교도(38%), 가톨릭교도(33%), 정교회 신자(26%), 유대인(22%), 불교도(14%), 힌두교도(13%)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가톨릭 신자들 정규 출석률은 2000-2003년 45%에서 20년 후 2021-2023년에 33%를 기록하며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 ‘무교로 알려진 무종교 인구의 증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프로젝트인 ‘미국인생활조사(Survey on American Life)’는 “교회 출석률이 코로나19 봉쇄 이전 수준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백악관 “푸틴, 모스크바 테러 우크라 개입설 제기는 허튼 소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속해서 모스크바 테러에 대해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28일(현지 시간) 미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소통보좌관은 “안타깝게도 1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연장 관련 이슬람국가(IS) 테러에 대해 최근 크렘린궁과 러시아 정부가 보여준 선전전과 허튼 소리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지만 IS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공격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 사건은 급진 이슬람주의자의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서방 배후설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25일 긴급 소집한 안보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범죄가 이슬람 세계가 수 세기 동안 이념을 놓고 싸워온 급진 이슬람주의자 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나”라며 “이 잔혹 행위는 2014년부터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정권의 손으로 우리와 싸워온 사람의 일련의 시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번 테러가 IS의 분파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의 소행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또 미국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에 앞서 러시아 당국에 위협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서면으로 이를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권성근 기자

전세계 청소년 6명 중 1명 “온라인 괴롭힘 당해봤다”

전세계 청소년 6명 중 1명은 온라인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BC는 27일(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44개국 청소년 27만9000명을 대상으로 건강행동 설문조사(HBSC)를 실시한 결과 6명 중 1명이 온라인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남학생 기준 15%, 여학생 기준 16%가 괴롭힘을 당했다. 지난 2018년보다 각각 3%씩 증가한 수치다.

BBC는 피해뿐 아니라 가해 경험도 증가했다

는 사실에 주목했다. 온라인 괴롭힘 가해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4%, 여학생은 9%로 조사돼 2018년에 비해 각각 3%, 2% 증가했다.

WHO는 청소년·가정·교육기관을 상대로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시급히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스 앙리 P. 클루게 WHO 유럽지역책임자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의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젊은 세대의 사회 활동이 온라인 환경으로 전환되며 사이버 괴롭힘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모두 증가했다.

클루게는 “온라인 괴롭힘은 주요 사회 문제로

간주돼야 한다”며 “아이들은 이제 매일 최대 6시간을 온라인에서 사용한다. 사이버불링 문제는 수천 명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사라 한나핀 전국제교장협회(NAHT) 선임 정책 고문은 “정말 우려스럽다. 학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이버불링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학교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의 노력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최윤영 기자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경찰 600여 명, 4월에 총파업 예고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 보안경찰 600여명이 4월에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들이 소속된 영국 공공 및 민간 용역노조(PCS)가 2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들은 새로 바뀐 업무 교대 방식에 대한 반대로 쟁의에 돌입해 4월 11일부터 주말을 포함해서 4월 동안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매체들을 인용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PCS 발표에 따르면 히스로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와 여권 심사 등을 수행하는 공항 보안경찰들은 지난 주 새로운 근무 순번표가 발표되고 교대

근무 방식의 변화가 생긴 것에 반대하면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4월의 파업을 결의했다.

PCS는 이번엔 달라진 근무표는 결국 4월 말 쯤에 약 250명의 직원들을 강제 퇴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 노동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국에서 가장 붐비는 대형 공항인 히스로 공항의 파업으로 해당 기간 이용객들이 대기줄 증가와 수속 지연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미례 기자



인천환경공단
INCHEON ENVIRONMENTAL CORPORATI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도시도 시민도 활짝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UL M SOUL

지하철



버스



따릉이



기후위기 대응까지



카드 한 장으로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문의: 120 다산콜

4·10 총선 판세... 여야 '수도권·충청' 최대 격전지

4·10 총선을 앞두고 31일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분석한 '우세' 지역은 각각 85곳, 150곳으로 집계됐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24곳, 민주당은 85곳을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강남권과 송파, 동작, 용산, 중구 일부 지역 15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갑을병, 송파을, 서초갑을 등이 안

정권으로 꼽혔다.

민주당은 강서갑을·병, 강북갑을 등 최대 23곳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까지 지금 추세라면 경합지 20여 곳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에서 국민의힘은 여주·양평, 동두천·양주·연천을 등 7곳을, 민주당은 51곳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각각 예측했다. 인천은 민주당이 14곳 중 11곳에서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시스

이처럼 수도권에서 두 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

권 역시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 28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은 5곳만 '우세'로 분류했다. 최근 들어 열세로 바뀐 지역구도 많아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 5곳, 충남 6곳, 충북 5곳 등 절반 이상에서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울산·경남 '낙동강벨트'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절반 이상 확보를 노리고 있다.

경남 16곳 중 13곳, 부산 18곳 중 9곳, 울산 6곳 중 4곳에서 앞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TK)과 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TK 25개 지역구 중 경북·경산, 대구 중남구를 제외한 23곳을 '우세'로 분류했다. 강원에서도 8곳 중 7곳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광주·전남·전북, 제주는 민주당 텃밭으로, 모두 28석을 사수할 것으로 자

신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주말 이후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퇴, 야권 후보 의혹 등으로 민심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에서도.

반면 민주당은 경합 지역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해 지역구 과반을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언더독' 전략을 이어가며 '낙관론'에 빠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용국 기자

막말·의혹 공방에 얼룩진 제22대 총선

여야 후보 재산·편법 논란에 고소전 가열...네거티브 과열 양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열흘여 남긴 31일, 여야 진영은 휴일임에도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비방과 막말로 선거가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후보들의 재산 관련 논란과 각종 의혹 제기, 이에 따른 고소고발 공방 등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상대편을 향해 "정치 뒷잡이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쓰레기 같은 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민주당 주자들을 직격했다. 지난 28일에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 입이 쓰레기통"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며 정치 언어의 오염을 꼬집었다.

후보자들의 재산 및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한 고소고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공영운 후보는 현대차 엔진 결함은 폐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개혁신당 측은 이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 후보 측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양문석 후보 역시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의 편법 대출 의혹을 인정하며 "사기 대출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도 1년간 41억원의 재산 증가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 측은 배우자의 퇴직금, 상속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억원대 변호사 선임비 수령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이에 새로운미래는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 문제 후보들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불공정 4인방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박은정, 양문석, 공영운, 이용호(국민의힘 서대문갑) 후보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후보들의 각종 의혹과 논란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 향후 전개 양상이 주목된다. 박용국 기자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영장심사 출석

유튜버 A(40대)씨가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취재진의 "왜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40여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또 "사전투표 부정의혹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있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명영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5일과 6일 치러진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정선거 감시"를 이유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최초 불법카메라는 경남 양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됐고 이후 인천 9개

구에서도 불법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서울,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 수 4428만 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총 선거인 수가 4428만1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1대 총선 때보다 0.6%(28만5764명) 증가한 규모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내 선거인은 4425만1919명, 재외선거인은 2만8092명이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71만1608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18~19세 젊은 층이 89만5092명(2.0%)이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여성 2233만8197명

(50.47%), 남성 2192만4576명(49.53%)으로 여성이 조금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1364만605명, 26.2%)가 가장 많은 선거인을 보유하고, 세종(38만7344명, 0.7%)이 가장 적었다.

이번 국내 선거인명부는 지난 3월 19일 기준 주민등록지에 따라 확정됐다. 선관위 측은 "3월 20일 이후 전입신고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외선거인 수는 2만8092명으로 집계됐다. 박용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6%로 하락... 6주 전보다 7%p ↓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스시 의뢰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로 나타났다. 이는 6주 전 조사 때보다 7%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1%로 긍정평가보다 25%p포인트 높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긍정평가는 70대 이상(60%), 국민의힘 지지층(86%), 대구·경북 지역(4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주 전과 비교해 긍정평가 변동을 살펴

보면 70대 이상(41%p)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긍정평가가 떨어졌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2%p), 개혁신당(+3%p)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5%p)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표본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박용국 기자

러시아 UN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해산, 北과 군사협력 강화 우려 증폭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15년간 활동해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해산시킨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력 심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부소장과 앨런 김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이같은 행보가 향후 북한과의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나 탄약 공동생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이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가 오랫동안 지

켜온 무기 비확산 규범을 포기하고 북한에 위성, 핵잠수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민감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3단계에 걸쳐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제재 불이행 ▲대북제재 대응 거부 ▲전문가패널 해산 및 제재 해제 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G7 등 유사입장국 협의체를 통한 대응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용국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콜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우려... 공정성 문제까지 겹쳐

'킬러 문항' 배제 정책 2년차, 난이도 조절과 공정성 확보의 딜레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능 난이도 조절의 실패와 출제 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킬러 문항'의 배제 정책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 등의 변수와 함께 출제진의 무작위 선정 정책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어떠한 결

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불수능', '용암수능' 등의 평가를 받으며 만점자가 단 1명에 불과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수능을 통한 공정한 평가와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올해 수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된 '사교육 판박이' 문제와 관련해 평가원이 취한 공정성 강화 방안은 출제 과정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출제위원 선정 과정의 무작위화 및 사교육 업체와의 연관성 검증 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 수능의 난이도와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능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 서 사교육 관련 문제의 유사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수능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올해 수험생들이 겪게 될 혼란이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험생들은 이미 무전공 선발,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한 대입 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수능의 난이도 및 공정성 문제까지 겹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나래 기자

의대 교수들, 체력적 한계 호소 하면서 '근무시간 재조정' 요구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 속 의료계-정부 갈등 심화, 의사소통 개선 절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40일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 교수들의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근무 시간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의학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의비는 의대 교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 조정을 요구했다. 현

재 의대 교수들은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98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량 조절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전의비는 각 진료과의 상황에 맞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상급 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증 환자의 경우 줄임으로써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긴급한 환자의 경우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해 진료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의비는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

부 2차관의 언론 대응 배제를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로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요구사항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특정 직역과의 협상으로 의료 개혁을 뒤집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민수 2차관은 "500만 국민의 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을 특정 집단의 요구에 굴복해 변경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나래 기자

응급 의료 거부로 2세 여아 숨져... 사회적 충격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골 도랑에 빠진 만 2세 여아가 응급치료를 요청했으나, 상급종합병원 10곳이 전원 치료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사망한 것이다.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31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4시30분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빠진 A(생후 33개월)양이 상급종합병원의 잇따른 전원 거부 끝에 3시간 만에 숨지게 되었다.

사고 당시 응급 조치를 담당했던 보은한양병원은 맥박 회복 후 총복권과 총남권, 경기남부권 상급종합병원 9곳에 긴급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대전, 세종, 천

안, 화성, 수원, 의대병원과 종합병원은 소아중환자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A양을 받지 않았다.

A양은 이날 오후 6시7분께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맥박이 회복되었고,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은한양병원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은 119상황실은 세종과 수원, 성남, 청주, 천안의 대학병원 5곳에 연락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오후 7시1분에 재차 심정지가 오고, 7시40분에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후 7시25분에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원을 수용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진 시점이었다.

이날 보은한양병원과 119상황실이 전원을 요청한 7개 도시, 11개 상급의료기관 중 전원 요청에 응한 곳은 마지마

로 연락이 닿은 1곳뿐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연락했던 시점에 따라 환자 상황이 달랐을 수 있다"며 "나머지 대학병원들도 의료진 부재, 병상 부족, 중환자실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은한양병원 관계자는 "당시 일반의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다 한 뒤 전원을 요청했다"며 "큰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소생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A양은 사고 당시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학부모 80%, '지방유학' 증가 예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변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지방 고교 출신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전형 확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학부모 대다수가 이로 인한 '지방유학' 증가를 예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0%가 정책 변경 후 지방유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은 1446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인재 선발전형 확대 계획에 따른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 이동 증가를 예상했다. 특히 수도권 학부모의 경우 충청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 더 많은 정원을 배분하고,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등학교 6년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선호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의 90.5%가 의대 선호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의사 공급 확대가 의대 선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종로학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향후 의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등학생 수의 감소와 수능 응시자 및 자연계열 선택과목 응시자 비율을 고려할 때, 늘어난 의대 정원은 이공계열 학생 전체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국 기자

한국인 위암 발생률, 전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약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위암이 5대 암으로 불릴 정도로 흔히 발생하는 암 질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암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 발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발병 요인으로는 매운 음식과 짜게 조리된 육류 중심의 식습관, 그리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이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위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2030세대의 위암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 식습관, 음주, 흡연 등이 위암의 원인이 되며, 헬리코박터균은 주요 발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며,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세균이다. 이 균 감염에 따른 만성적인 위염은 위축성 위염과 위암 발생률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대변이나 위액의 역류, 타액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되었을 때 특별한 증상이 없어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속 쓰림, 소화 불량,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헬리코박터균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내시경 검사는 위 병변을 직접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과정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와 초기 위암을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불편함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데, 최근에는 게스트로패널(GastroPanel)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게스트로패널 검사는 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 항체, 펩시노겐 1과 2, 그리고 가스 트린-17을 동시에 검사하여 위암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혈액검사이다. 이를 통해 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나래 기자

시중은행 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금리 경쟁 치열

금융소비자가 선호하는 주요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대출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에서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신용대출 상품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의 최근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달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3.75%로, 이어 케이뱅크가 3.81%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3.94%로 가장 낮았으며, 이후 신한, NH농협, 우 리은행이 3% 후반대, 하나은행은 4.06%의 금리를 보였다.

전세자금대출 부문에서도 케이뱅크가

3.62%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했으며,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3.70%, 3.71%로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만이 3.83%로 3%대 금리를 제공했다.

신용대출에서는 신한은행이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금리 4.65%로 가장 낮았으며,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가장 낮은 5.37%를 기록했다. 이나래 기자

동아제약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아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안전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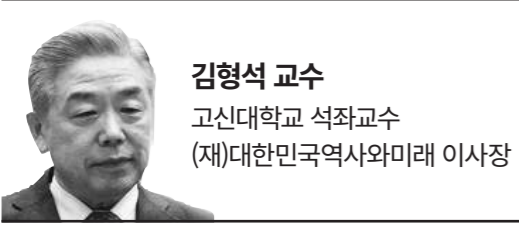
동아보감 60호(23g x 10포 x 6)

경옥고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일반의약품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삼일절과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



김형석 교수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재)대한민국역사미래 이사장

지금부터 40여 년 전, 내가 남강문화재단 일을 보던 시절에 남한산성으로 재단 이사장이던 한경직 목사님을 종종 찾아뵙고 말씀을 들던 추억이 새롭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학창시절 은사인 남강 이승훈 선생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시던 기억이 난다.

1918년 가을에 졸업을 앞둔 한경직 목사님이 두 친구와 함께 남강의 거처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초저녁시간인데 몸이 불편하시다고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맞이주시면서 “오늘이 바로 내가 몇 해 전에 감옥에서 일본 놈들에게 실컷 매를 맞은 자리다. 이상하게도 매년 이날이 되면 매를 맞은 자리가 몹시 아파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105인 사건’ 때 고문당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날 한 목사님은 남강 선생의 등을 쓰다듬어 드리다가 등바닥이 온통 채찍자국인 것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한 목사님은 이듬 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소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거리에 나갔다가 남강이 민족대표로 선두에 선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 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독립운동에 앞장 선 것을 생각하니, 몇 개월 전에 집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들어라. 나 이승훈이는 죽을 때까지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을꺼야!”라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 회고해주셨다.

이렇게 철저한 민족교육과 기독교교육을 가르친 오산학교(五山學校)는 한국근현대사에 수많은 민족지도자를 배출한 명문 사학이다. 남강 이승훈 장로가 설립자이고, 고당 조만식 장로가 교장으로 교육을 담당하던 이 학교에서 한국교회사의 큰 별인 주기철 목사와 한경직 목사가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독립 운동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이던지 한민족이 살던 곳에서는 독립을 외친 3.1운동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은 국내적으로도 민족의식과 자유사상을 고취시킴으로써 한국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3.1운동이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것은 외래종교인 기독교가 민족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3.1운동은 종교계와 학생층이 주도하였으며, 특히 기독교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 16인, 천도교 15인, 불교 2인으로 구성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민족종교를 표방하며 1백만 신도를 자랑하던 천도교에 비해 국내에 유입된 지 40년이 채 되지 않고 전체 신도수가 25만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가 가장 많은 민족대표를 배출한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민족대표 선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남강의 활동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심이었다.

이것은 3.1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종교별 통계를 살펴봐도 알 수가 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전 국민의 1.25%에 불과하였지만, 구속자의 22.5%를 차지하였다. 비율로도 15%인 천도교나 1% 미만인 불교와 유교를 압도했고, “이제 기독교는 국민의 종교가 되었다”는 격문이



제주도 조천의 남강 유배소 보존식(1990.10.10) - (좌1)한경직 목사, (좌4)필자, (좌5)김형석 교수, (좌6)김형석 교수 제공



한성감옥의 종신수 이승만(완족)과 앞줄의 유성준(좌3) 이상재(좌4) ©김형석 교수 제공

나뉘을 정도였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왜, 애국하는 종교가 되었을까? 그것은 당시 국내의 정세와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 조선은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안으로는 관리들의 부패와 자연재해로 인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그런데 선교사들도 이 같은 조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일기를 살펴보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의 철책을 부수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어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아펜젤러 일기, 1885.4.5)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한 선교활동에 나섰다.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고 민주주의와 애국심을 가르쳤다.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된 젊은이들은 기독교에서 개인과 국가의 비전을 발견하였고, 독립협회를 통해 민족주의와 시민운동도 체득했다.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구국을 위한 독립운동에 나선던 우국지사들이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1902년부터 1904년 사이에 한성감옥에는 이승만의 전도로 40여명의 죄수와 옥리가 개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는 이상재·이원규·홍재·가감정·사유성준 같은 저명한 정치범도 포함되었다. ‘한성감옥 집단 개종사건’인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던 그들은 콜레라가 창궐한 감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을 목격하며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이처럼 독립운동과 성령체험이라는 이질적인 두 개의 콘텐츠가 만나 새롭게 태어난 곳이 한

국교회이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의 민족적 에너지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서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만든 한서남 공역은 “한 몸 안에서 불타 솟아난 신앙이라야 나라도 구하고 겨레도 구제한다”고 말한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나라가 어려우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 3.1운동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영락교회에서 발행하는 <만남>(2024년 3월호)에 수록된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감나무와 굴나무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의 신앙의 시작점과 이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훈련되고 자라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

나, 믿음 또한 늘 변하는 우리 마음에서 생산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여정이어서 기쁘고 흥분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여정은 존 변연 목사님이 쓰신 전로역정처럼, 험난한 여정이라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은혜를 일찍 체험했어도, 나중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후반기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체험을 늦게 했어도, 아주 짧은 시간에 신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 생활, 믿음 생활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보통은 먼저 시작한 사람, 먼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잘 살고, 잘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일에는 역전도 있고, 퇴보도 있고,

급성상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늦게 시작했는데, 10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노력 보다는 타고난 재능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함과 노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천재에 가까운 재능인이 아니라면, 성실함과 최선의 노력은 언제나 역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불성실과 교만은 퇴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자들이 많다”는 말씀을 통해, 일반적인 상식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먼저 시작하였고, 먼저 은혜 받았지만 결국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퇴보할 수 있으니 신앙의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같은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칼럼을 통해서 저희 집, 페리오에 있는 두 그루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여년 전에 감나무와 굴 나무를 심었는데, 첫 해에 감나무에 열매가 4개 열리더니, 이듬해는 열 몇 개, 그 다음에는 스

무 개 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감사(감 열매 4개)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년 만에 열매를 맺은 굴나무에 대해서도 칼럼을 썼습니다. 그간 열매가 열리지 않아, 볼 때마다 베어버려야지 라고 다짐했으나, 불쌍하기도 하고, 또 벨 시간이 없기도 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보기 좋게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 영혼의 중요성과 영혼이 열매 맺도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나무가 거의 죽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비가 와서 물도 듬뿍, 영양분도 듬뿍 주었는데, 싹이 돌아야 할 봄에 싹이 나지 않고 바싹 말라 버렸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죽은 듯 보였습니다. 반면에 굴나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줄기가 쪽쪽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무 동치도 많이 굵어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에, 30-40대에, 하나

님을 뜨겁게 만났습니까? 50-60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며, 꾸준히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지만, 어떤 이는 50대 60대 되어서 취미 생활, 은퇴 생활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나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입니다. 뜨거웠던 30년 40년 전의 우리가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의 내 신앙의 온도입니다. 신앙은 발전적이어야 하고, 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서, 더 헌신하게 되어서, 나이가 들수록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나는 다 받을 거 다 받았고 누릴 거 다 누렸다 더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감나무와 굴나무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노년까지도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불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할양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세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윤리-선교 동등하게 보는 '통전적 인식'과 로잔

안승오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선교신학



로잔이 추구할 선교와 윤리의 바람직한 관계(中)

II. 윤리적 과제와 선교적 과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

1.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와 윤리에 대한 통전적 인식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큐메니칼 진영은 대략 이차 세계 대전 후부터 선교의 과제를 윤리적 책임 실천으로 보는 경향을 지녔다. 즉 세계의 복음화 보다는 이 세계의 인간화에 더 깊은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5년 나이로비 대회를 기점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은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 즉 통전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사이더는 선교에 관한 4가지 관점들을 말하면서 그 중 세 번째 관점을 "개인의 회심과 사회의 정치적 개조는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구원의 각 부분들이다"라는 제목 붙인 후에 "이 세 번째 관점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집단적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 개인과 사회의 구원, 인류와 신음하는 피조물의 구원이다"고 말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진영은 구원의 개념 자체를 개인과 영혼으로 제한하지 않고 육체와 사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므로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인 "선교와 복음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선언"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지역 교회를 심고 확장하는 일은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다. 복음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부름받는다"고 말함으로써 에큐메니칼 진영이 사도적 책임을 무시하지 않는 통전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을 보면서 이형기는 "1982년 '선교와 복음전도 - 하나의 에큐메니칼 선언'은 직접적으로는 1980년 멜버른 CWME의 치우침을 수정하였고, 간접적으로는 1975년 나이로비의 통전성을 이어받았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여전히 에큐메니칼 진영은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가운데 윤리적 책임에 더 치우친 경향이 있지만, 여제되었던 에큐메니칼 진영은 두 가지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책임으로 보면서 두 가지가 다 선교의 과제라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로잔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진영의 통전적 인식

복음주의 진영은 본래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선교의 다리 또는 열매로 생각하는 전통적 이해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음주의 진영은 1974년 1차 로잔 대회부터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로잔언약 6항은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복음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말 속에서 윤리적 과제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과제가 우선순위를 지님을 표명하면서도, 약 반세기 이상 선교의 한 부분인 사회, 정치적 책임을 무시하고 양극화하여 배타적으로 생각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나타내면서,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복음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제3차 로잔대회 ©lausanmovement

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고 5항에서 말함으로써 사회 정치적 참여를 교회의 핵심사역으로 바라보았다.

이처럼 로잔이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로잔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에큐메니칼 진영과 뜻을 같이하여 선교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동등하게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 그룹의 영향력이 있었다. 소위 '급진적인 제자도 그룹(Radical Discipleship Group)'이라고 명명되는 이들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붙잡아야 함을 강조하는 문서인 '로잔에 대한 반응(A Response to Lausanne)'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로잔 언약의 부록으로 채택되어 사회적 책임 문제가 선교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즉 1974년 로잔은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가운데 사도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미 이때부터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윤리적 책임을 사도적 책임과 동등선상에 놓고 선교의 목표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1989년에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로잔대회 역시 로잔 1차 대회 때처럼 복음전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마닐라 선언문 2부 제 4항은 "우리의 주된 관심은 복음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바로 뒤에 말하기를, "오늘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병자를 돌보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들을 살피며, 억울한 자와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도와주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고, 소명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복된 소식과 선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음을 단언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즉 제2차 로잔대회는 복음전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도 사도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명을 통전적으로 보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입장에 더 가까이 다가간 모습을 보여주었다.

<계속>

◆안승오 교수(영남신대)성경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에서 수학한 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신학석사(Th.M) 학위와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총회 파송으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며, 풀러신학대학원 객원교수, Journal of Asian Mission 편집위원, 한국로잔 연구교수회장,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Rethinking the Theology of WCC』,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선교 주제 28가지』, 『현대 선교학 개론』(공저), 『한 권으로 읽는 세계 선교 역사 100장면』, 『성경하는 이슬람 약화되는 기독교』, 『현대 선교신학』, 『현대 선교의 핵심 주제 8가지』, 『현대 선교의 프레임』, 『제4 선교신학』, 『성경이 말하는 선교』, 『현대 선교신학(개정판)』, 『현대 선교의 목표들』 등이 있다.

각 상실과 부활의 소망



민중기 목사
총천선교회 원로목사

노년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며, "내가 이제 간을 맞출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에 무슨 거미줄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노령에 따르는 증상의 시작인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지에 들렀다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미국에 복귀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3년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저이지만, 혹 주변에 민폐가 될까 봐 속히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의 독감으로 후각 상실이 왔습니다.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셔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문득 부모님의 하소연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이제야 느껴지고, 늦게나마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연민이 내면으로부터 차올랐습니다.

압살롬의 시대에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겼던 부자, 바르실레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반

역자를 물리치고 그에게 "궁궐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청할 때, 그는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팔십 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소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소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소오리이까(삼 19:35). 그는 왕의 호의를 돌려 아들 감람에게 배려를 부탁합니다. 바르실레는 고령으로 감각이 점차 약화, 상실되었으니, 부모의 무덤을 지키리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나이 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묵화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의 하나는 "시간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명제입니다. 많은 성도를 돌아볼 때, 육체의 기능이 점차 약화, 상실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 인격이나 영적 기능은 계속 고양될 수 있다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노령의 증상, 곧 기억 저하와 쇠약해짐을 반전시키려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도모합니다. 저도 후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제 발로 한 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후각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건강하게 묵화하면서 살았던 저이지만, 이제 우리 몸도 조금씩 수선하면서 살아야 하는 엄혹한 현실에 미소를 지으며 수납합니다.

아마 미래에 정신이나 신체의 기능이 한창 젊었을 때의 수준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만을 제 남은 삶의 목표로 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 이후 신체적 완성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나의 오감(五感), 곧 시각, 청각과 후각, 미각과 촉각이 완벽하게 회복됨을 믿으며 안도감을 가집니다. 이제 "안경을 벗겠

구나, 잠자리와 벌새의 날개 치는 소리까지 들겠구나, 사과의 냄새와 맛을 즐기며 오랜지 동산의 향기에 취하리라, 개울가 닥터피쉬의 간지럼을 느끼며,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물론 소시민적 회복을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은 우리의 영육 간의 새로운 은 물론이고, 하나님 관계와 인간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권위 능력과 지혜를 직접 누릴 때, 우리의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찰거머리같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던 죄의 소욕과 오류(誤謬, faults)가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나누지 않은 온전한, 사람의 공동체가 더 이상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섬기는 새 예년,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건강한 가족이 되어 서로 섬기게 될 새 에루살렘이 우리 부활의 미래일 것입니다.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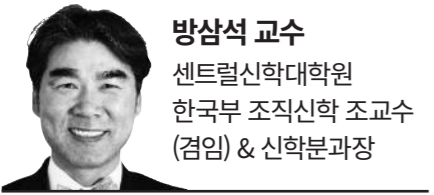
30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상, 염좌상(범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센터럴 신학단상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리고 “와서 보라!”



방상석 교수
센터럴신학대학원
한국부 조직신학 조교수
(겸임) & 신학분과장

갈릴리로 가려 하시는 길에 빌립을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크게 흥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때를 기다리고 있던 나다니엘을 찾아가 외쳤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다!”(요1:45) 그러나, 나다니엘 반응은 싸늘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요1:45).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도시가 아니었다. 구약성경이나,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어떤 글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작은 시골마을이었다. 메시아와 이 강촌 시골마을을 연결하는 것은 억지스럽고 우수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다니엘 뿐 아니라, 어느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와

“나사렛 예수” 사이에는 인식 부조화의 영역이 존재한다. 나사렛과 메시아는 구약 유대교와 신약 기독교인들의 메시아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인식부조화의 영역, 이해할 수 없는 것의 경험으로의 초대이다.

◆인식론들의 한계

근대 이후의 인식론은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크게 나눈다. 데카르트는 근대정신에 생기를 불어넣은 합리주의의 전형이다. 그는 수학적으로 명석명명한 진리,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사유판단의 근거가 되는 명제를 찾고자 하였다. 그것이 바로 “Cogito ergo sum!”이다. 데카르트에게 존재의 확실성은 Cogito를 통해 경험된다. 이성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 진리를 토대로 신의 존재도 논증가능하게 된다. 이성이 실험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신)에 대한 개념을 증명할 후에는 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저 밖에 펼쳐진 세상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데카르트의 신존재증명은 사유하는 존재 자체의 유한성을 통해 선험적 절대존재(신)를 증명한다(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유한에서 무한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불안정한 존재에게서 완전의 개념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재미있게도 이성(철저한 자기유한성의 인식안에서 신(神)인식의 정당성을 얻는다. 합리적 의심은 유한한 존재의 자기증명인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성에 있는 완전! 그 선험적인(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닌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의 진리 경험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증명 가능한 것이기에 데카르트에게 합리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당연하다. 유한한 존재에게 완전을 경험하게 해 줄 수단이 바로 이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경험론자들은 경험에 앞서는 선험적 판단자체를 부정한다. 인간은 백지(Tabula rasa)상태로 태어나 경험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경험에 선행되는 개념들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경험이란 감각지각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반응을 통하여 습득된다. 즉 모든 참된 인식의 원천은 감각이다(F. 코플스톤, 『영국 경험론』, 이재영, 서광사, 1991). 합리주의자들이 외부세계와 경험 초월적인 사태들에 대하여 증명하더라도, 그것

이 우리 경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면, 경험론자들에게 아직 나다니엘에게 “나사렛 예수”와 같은 것이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반문하는 자의 경험세계를 넘어서 있다.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이성은 성공할 수 없다. 논증의 역사는 신존재증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식론의 체계안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경험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빌립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인식론

나다니엘에게 “나사렛 예수”는 합리주의자들에게는 증명 불가한 논증이며, 경험론자들에게는 선험적인 지식없이 경험될 수 없는 어떤 것과 같아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반응이 당연하다. 그러나, 빌립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

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거기에는 분명 성령이 선포하는 누미노제의 희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와서 보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인식론의 정점에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히11:1). 합리적 추론이 열망하는 것의 실재이고, 감각 지각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의 증거이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합리적 추론이나, 감각지각을 통한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빌립은 자신의 합리적 이성이 절대화된 통념의 체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현실적 가치체계 너머의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소리를 들었고, 나사렛 예수는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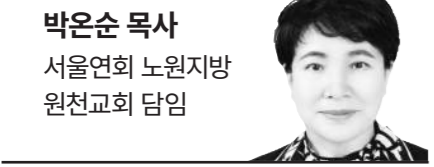
◆“와서 보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하신 것처럼 믿음은 누군가가 나를 먼저 “와서 보라!” 불러야만 일어나는 신비이다(사 45:4). 우리를 저 멀고 거친 인식의 땅끝에서부터 불러 세우신 분이 명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

던 곳에서 너를 불러 세우며 일렀다.“(사 41:9)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비상한 (Extraordinary) 것의 경험은 잘못된 인식체계, 오염된 가치체계에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경험하는 환희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엡2:5-6).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던 나다니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의 실재를 “나사렛 예수”로 추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가서 직접 보는 수 밖에는 없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나다니엘도 우리도 “나사렛 예수” 앞에서 우리의 철용성같은 인식의 체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와서 보라!” 그렇게 우리도 전혀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초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는 나사렛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 Rev. 방상석 교수(Ph.D)는 센터럴신학대학원 한국부 조직신학 조교수(겸임) & 신학분과장이다.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목사이기도 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년 ‘녹색연회’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1)



박순목 목사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I. 들어가는 말

2019년도 인천 쿠퍼대회에서 축복식을 행한 젊은 목회자의 반성경적이고 반 교리적인 행태로 인하여 지난 5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는 몸살을 앓아 왔다. 도대체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어디까지 추락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답게 진리대로 가르치고 믿으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람이 될지,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4년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끄는 녹색연회”(창1:3)를 전국의 11개 연회가 시행하도록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교 발간으로 문서를 제작하여 감리교회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성경적이고 삼위

일체적이며 개혁적 신앙을 따르는 웨슬리에 의해 세워진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녹색연회’를 지향하며 함께 하고 있는 목회자들 다수가 이동환의 사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자들이나 것을 명단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서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모두 적시할 수는 없으나 심각하게 반 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들이어서 기독교대한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하기 전에 급변에 “녹색연회”를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전면 폐기해야 한다.

1. 주제해설

기후 변화가 위기를 넘어 재난과 붕괴의 과국으로 임박한 이때, 우리는 “흠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창2:7)을 생각하며 창조세계의 생기를 회복하고자(revival) 2024년을 ‘녹색연회’, ‘녹색총회’로 모이기를 제안합니다. 시류에 따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 가득한 자본가들처럼 환경, ‘녹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님의 자녀로서 과국의 책임을 느껴 창조주 하나님께 참회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녹색(green)’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중략.....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이처럼 서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십니다.....중략..... 우리가 아껴 쓰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옷의 재료인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그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나눠 써야 모두가 삽니다(Revival). (장석근 목사/선교교 환경선교위원장)

II. 무엇이 문제인가.

1. 주제해설에 나타난 범신론
주제해설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 전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I-에서 밝혔듯이 “기후 변화가 위기를 넘어 재난과 붕괴의 과국으로 임박한 이때, 우리는 ‘흠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창2:7)을 생각하며 창조세계의 생기를 회복하고자(revival) 2024년을 ‘녹색연회’, ‘녹색총회’로 모이기를 제안한다(하

겠다)는 것이다. 창조세계의 생기를 회복하고자함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하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잇을 던져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얽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합21:9).

2. 설교문에 나타난 문제들, 범신론 및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으로 여김.

설교문을 작성한 김민석 목사는 생태영성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면서 그 관점의 전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둘째, 모든 존재들이 존재의 사슬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도 인용했으나 잘못된 해석이기에 생략함). 이는 플라톤의 ‘황금사슬’이론을 적용한 중세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존재의 대시술을 근거로 존재의 대시술은

하나님을 정점으로 천사,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로 내려가는 존재의 계층 구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회 문서p15쪽)

이와 같은 논리가 진리라면 성경은 다시 기록해야 한다. 즉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한 야담의 타락 이후 예레뮄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자가 된 것은 어찌된 일인가? 천사와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선한 인간들(?)을 위하여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동등으로 여기는 이러한 사고에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는 설교문 두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 있다”입니다. “이것은 생태 정의의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과 화해의 사역의 지평인 인류를 넘어서 온 피조 세계를 아우른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인간은 지구와 지구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의 이러한 오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가장 고통 받는 존재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을 살아가는 다른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지구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 지구적 의사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생태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단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신학의 정의와 관점의 문제에 대해 성경을 통해 반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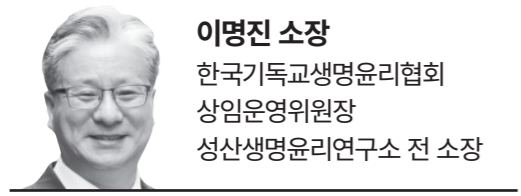
<계속>

세상에 행복을 **가** 놓는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인격적 성, 바꿀 수 없는 성



이명진 소장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크리스천과 생명윤리(11)

생명은 성을 통해 나오기에 성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성을 단순한 의학적 관점이나 생물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성에 대한 생리학적 작용과 해부학적 지식만으로는 성을 잘 다룰 수 없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항상 책임이 따르는 영적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에 필요한 윤리기준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7계명과 함께 성행위는 창조질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해 놓으셨다.

◆인간의 성과 동물의 성이 다른 이유

성은 모든 동물과 인간의 종속 번식의 수단이고 가족을 이루게 하는 소중한 도구다. 같은 종속 번식의 기능을 하지만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기에 동물과 달리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도 없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캐슬린 베리는 "성을 가질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할 때 인간은 사물이 된다. 대상화는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근본 전제조건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라고 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성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졌



기에 이성적 사고와 성찰하는 능력이 있다. 공동의 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금기(taboo)를 정하고, 동물적인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 나간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인격적'이라 한다. 일부 영리한 동물들도 본성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동물들이 있지만 이것을 두고 인격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인격은 매너와 에티켓, 윤리와 도덕, 법을 지켜가며 공동의 선을 이루어 간다.

인간의 성생활은 짐승과는 다르다. 짐승의 성생활은 본능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성생활은 인격적이고 도덕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허락하신 규범 안에서 누리는 성적 만족을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물과 달리 본성적으로 본능을 제어하는 능력인 도덕성이 성의 영역에도 작용한다. 만약, 인간이 인격과 도덕적 수준을 무시하고 배설 본능과 동물적 성적 충동에 따르는 쾌락만 추구한다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만다. 성관계를 인격의 수준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수

준에 둘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성은 인격이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고전 7:2-4)

◆성염색체를 바꿀 수는 없어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를 타고 생물학적 성을 벗어나려는 사조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성 개념인 일명 젠더리즘(Genderism)이 일고 있다.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자기결정권 주장이다. 젠더 개념은 생물학적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개념이다. 의학적으로 인간은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성염색체는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에 각각 존재한다. 간혹 남성이 여성의 몸을 가지고 싶다고 성전환수술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해도 각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남자와 여자는 성염색체뿐만 아니라 각각 작용하는 성호르몬의 영향이 다르다. 남자에게서는 청소년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남성의 외형과 기질을 가지게 되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여성스러운 외모와 기질을 가지게 된다. 뇌의 기능적 구조도 남녀가 각각 다르다. 악물에 대한 반응도 남녀가 차이가 난다. 흔히 사용되는 수면 약물인 졸피뎀의 경우 여성은 용량을 남성 복용량의 절반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일부 혈압약 경우도 부작용 발생률이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녀에게 있어서 약물 반응의 차이는 세포단위의 나노 단위에서도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명 성차의학(sex-specific medicine)이라고 한다.

몸을 부인하는 인격체는 존재할 수 없기에 자신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바꾸려는 시도는 질서에 맞지 않다. 질서를 거부할 때 의학적으로나 정신과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트랜스젠더의 41%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랜스젠더 청년들의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도 일반인에 비해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수술 후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된다. 게다가 성기관 제거 수술을 받은 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신 23:5)

社說

인권, 성소수자의 특권·전유물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공표했다. 교계는 초안 발표 당시 우려했던 '성 평등'이 '양성 평등'으로 바뀌고 '성 소수자' 문제가 제외되는 등 내용면에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현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 온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의 인권정책 방향으로 지난 2022년 3차 계획 종료 직후에 확정됐어야 했는데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일부 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발표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제4차 NAP를 발표하며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해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NAP에는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의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부분이다. "인간의 존엄은 생명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은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초"라고 했다. 인권 정책에 있어 '생명 존중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 약자 인권에 '북한이탈주민'을 별도 분야로 신설한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부분은 이전 NAP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정부가 북한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와 정착을 위해 법적 개선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별도 정책목표로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비전'과 새 시대 인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등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교계는 제4차 NAP 초안이 공개됐을 때 동성애 등을 포함해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소위 '유

사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격을 띠지 않을까 우려

했다. 제4차 NAP 초안엔 남녀간 '양성평등'이 아닌 수식 기지의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말하는 '성 평등' 용어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와 다양한 가족 용어 통해 동성 결혼 합법화, 낙태약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계가 사실상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며 반발했던 이유다.

그러나 확정 발표된 제4차 NAP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삭제되거나 상당 부분 개선됐다. 논란이 된 '성 소수자' 문제를 빼고 '성 평등' 용어가 '양성 평등'으로 대체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전 제3차 NAP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18년에 확정된 제3차 NAP와 비교해 봐도 그때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라고 하는 등 다소 어정쩡한 듯 태도를 취하면서도 의지를 숨기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4차 NAP에는 성소수자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 제3차 NAP에 '국어사전 성차별 내용 개선', '공무원 및 인권 조사자 교육'을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 과제로 제시했던 내용도 찾을 수 없다.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과제 대상을 '난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으로 지정했는데 이전 교계가 주장해온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법무부는 제4차 NAP 서문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규범'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 소수자 옹호단체에선 이번 NAP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수준이란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성 소수자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한 불만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 소수만을 위한 인권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차별이다'.

그런 점에서 4차 NAP는 정부의 인권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인권은 만인이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이지 성 소수자들만의 특권이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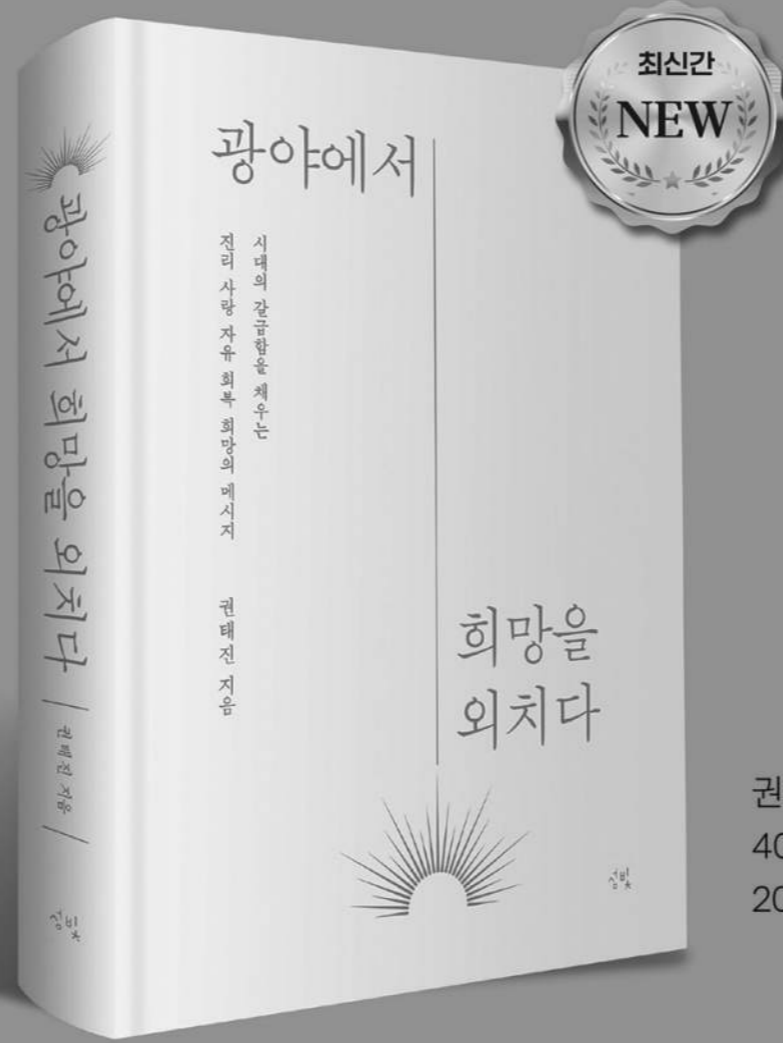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국가를 위해 쓰신 일기장”
이훈근 박사 _ 국제정치학자

“광야에서 외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장종현 목사 _ 백석대학교 총장

“진리의 기적 소리”
정인찬 목사 _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변함없이 진실한 시대의 사명자”
정서영 목사 _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책”
김만형 목사 _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장

“빛을 잃지 않는 깊은 울림”
권영해 장로 _ 전 국방부 장관

“복음에 뿌리를 둔 광야의 외침”
문성모 목사 _ 전 서울장신대 총장

“고뇌와 호소가 담긴 믿음의 유산”
서헌제 교수 _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거룩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좌표”
남진석 설립 이사장 _ 글로벌선진학교그룹

“말씀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책”
박명수 교수 _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통찰과 사색이 담긴 글”
임태희 _ 경기도교육감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령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아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김으로 낮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월남전(맹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 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력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금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유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움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 yes24 | 영풍문고 | KYOBO 교보문고



제1권 창세기-룻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사탄-이사야



제4권 이사야-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2024년 4월 복지교회 POWER UP!

교회복지세미나 (무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레위기 21장 17절~21절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_ 일시장소 4월 18일(목), 20(토) 11:00~14:30
안양복지교회 (위치: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61번길 30)

_ 모집인원 요일별 선착순 30명

_ 주 제 1. 장애와 관련된 성경 용어 수정 및 이해
1. 교회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_ 강 사 조상원 목사 교회복지연구원설립자
-The Christian Welfare Campus of Harvest Bible University 학장역임
-주요저서: 교회복지이해, 장애와 관련된 성경용어 수정 및 이해,
다시 읽는 성경(신약편), 교회와 장애인복지

등록 | 홈페이지 등록 www.cws95.net
문의 | 문자등록 010-9643-6356, 점심식사 제공

한국교회복지사회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6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성관행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의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육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원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made in NORWAY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

신간 '고백의 언어들'



이 책은 천교회와 감리교 목사의 고백 설교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교회 안과 밖에서 서성이는 이들, 시대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집필됐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인간은 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불안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간헐적으로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불안 속에서 지낸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 까? 에덴 이후 시대의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마련이다. 성경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뒤 자기야 살던 땅을 떠나서 에덴 동쪽 못에 정착했다고 말한다(창416). 방향이 상수인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 이러한 불안은 언제 그칠까?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라고 답한다. 하나님의 품에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고 했다.

이러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한계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내 가족이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감에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상황에 직면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무너지고 만다. 그에 비해 실존적 도약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도약은 그 한계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다. 도약을 하는 순간 지평이 넓어진다"며 "도약을 해야 경험 세계가 확장된다. 그런데 아무리 도약을 감행해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사람은 비로소 '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통할 수 없는 더 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 큰 세계와의 접촉, 거룩한 것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현악단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이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한다. 물론 이단들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미줄 같은 가르침 속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결국 그들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든다. 사회적 자아가 파괴되어 외부의 사람들과 소통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자유하지 않음' 곧 무사유가 악의 뿌리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를 경계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체험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누가 옳은지 다투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체험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집착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며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세상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드리워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대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 질문을 던진다. 정답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해도 좋은 것일까? 정답이 없다 하여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다. 삶이란 결국 선택이다. 부조리한 세상에 부딪혀 난파할 수도 있고, 그 세상을 뚫고 나아가 더 나은 세계에 이를 수도 있다. 세상의 무의미성에 짓눌린 채 수명론자가 되어 살 수도 있고, 숙명의 당기는 힘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도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시간이 흐르며 여러 가지 얘기가 덧붙고 많은 문학, 감상, 전통이 마귀를 둘러싼 많은 미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두려움이 그를 그려내기도 하고 그의 특징을 과장하며 그가 행하는 일을 탐바꿈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귀에 관한 적나라하고 단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에 관해 배워야 할 사실이 많습니다. 오늘날처럼 마귀에 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적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적의 특징, 존재,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근처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권력과 갈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권력과 갈등은 우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쟁취하는 무대이기도 하지요. 다니엘은 천사가 나타나 답을 주기까지 장장 3주를 기도했습니다.

E. M. 바운즈 '대적'



'아아, 로마는 그대로구나. 이토록 아름다운 도시인데 우리 스승님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순교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디모데가 로마 오스티아 항구에 도착해 대형 상선 제우스호에서 내리는 순간 곧 바울 스승을 만난다는 기쁨과 동시에 스승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슬픔이 동시에 휘몰아쳤다. 하마터면 선착장 옆에 높이 쌓여 있는 밧줄 덩어리 위로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다. 향해 내내 그를 괴롭힌 습기로 인해 더욱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우기다시 시도 때도 없이 내린 빗줄기 또한 그의 고단한 심령을 더욱 괴롭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몇 달간의 힘든 항해를 견뎌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배에서 내리기 전 걸음의 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가보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향해 내내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그의 행낭에는 바울 스승의 길쭉한 아나나 많은 음식과 물건이 들어 있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보낸 물품을 정성껏 챙겨 준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그것 또한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무게였기에 사실 걷는 것도 힘들었다. 그가 휘청거리면서 선착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누군가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부축하면서 속삭였다.

배상혜 '사도바울의 마지막, 특별한 열흘'



대부분의 사람은 주인공으로 태어난다. 축하와 박수, 온갖 애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간 받았던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 무슨 짓을 해도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기는 평범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청년, 장년이 된다. 이것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현실이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씩 유쾌하지만 않다.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려나니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온다. 그러나 여기서 쉽게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마음 한구석에 '내가 언젠가 다시 주목받으리라'는 야심을 은근슬쩍 품곤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관중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진다. 사람의 관심과 인정에서 자유하고 싶지만, 실제 감정과 태도는 영 그렇지가 못하다. 특히 설교자로 강단에 설 때 관중의 경향이 도드라진다. 솔직히 설교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얼마나 충실하고 정확하게 준비했는지도 성도들의 반응이 더 궁금할 때가 많다.

신동재 '진정한 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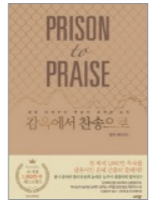
삶을 뒤바꾸는 찬송의 강력한 능력

신간 '감옥에서 찬송으로'

십 대 시절, 탈영과 일탈 행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저자 멀린 캐러더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균중장교가 되어 많은 장병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분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합당하거나 거룩하거나 영적이거나 순결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러 "나는 내 죄의 중함을 보면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보았다. 언제나 내 마음속 깊이 알고 있던 그분의 참모습을 보았다. 최근의 끊임없는 의심들이 기쁨에 찬 확신의 물결에 씻겨 내려갔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마치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말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떠오른 모든 말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새로운 힘이 있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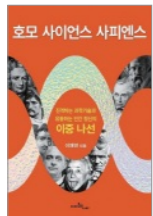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란 엄밀히 말해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나 자극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매순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이

해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손뼉 치고 크게 웃고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나는 찬양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 삶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행위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불순한 동기와 숨겨진 속셈으로부터 깨끗이 씻어내시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아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살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어둠뿐일 때 찬양의 제사가 드려진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다리의 어느 계단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존재를 더욱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신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인류사 뇌관 질문에 답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절대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듯, 과학기술과 인간 정신의 상호작용이 오늘날 문명을 만들어 냈다는 관점을 제시한 신간이 출간됐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아마존의나베)'의 저자는 신화를 분석하며 자연과 세계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품고, 과학기술과 인간 정신이 직조한 인류사에 질문을 던진다.

주요 질문은 '신화와 종교는 어떻게 과학기술 발전으로 향했는가', '인간 이성의 흐름은 어떻게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었는가', '과학기술은 어떻게 인간 이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현대 인류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것인가' 등

이다. 저자는 신화, 종교사, 과학사, 철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질문들에 답하며 인류사의 뇌관이 되는 논의를 펼친다.

상대성이론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품게 했듯, 이 책은 과학기술과 인간 정신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을 재조명한다.

이나래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정체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영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두 마음 품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승리하려면

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12) 그리스도인의 이중성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인지 나누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더 나눌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 전에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마 고난당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더 큰 고난이 온다고 새가족 성경공부 시간에 가르쳐 보라. 몇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을 제거하고 삶의 희망을 얻고자 종교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 명예, 위대함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하고 위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논리일 것이다.

누구나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동안 개신교에서 예수 믿으면 법사에 형통한다고 얼마나 강조해 왔던가.

하지만 성공이나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키에르케고어의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는 무엇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무엇이 한 마음을 품은 것인지 철두철미하게 파헤친다. 엄밀하게 말해, 그리스도인은 성공이나 명예나 위대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것만 구하는 데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해도, 마음은 분열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다시 한 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사람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어야 한다. 한 가지를 마음에 품는 것이 가능하려면 오직 선을 품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고, 그 선을 실현하려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두 마음을 품어치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렵고 또 두렵다. 두 마음을 언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서로 말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왜냐하면 비판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마

7:3). 이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에 앞서, 각자 자기 자신만을 살피자. 여기에는 필자인 나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은 구속하지만 정작 말하는 나는 구속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니까.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을 설교로 위로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설교자 자신만은 제외된다.

정작 설교자 자신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위로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설교자가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두 마음이다. 설교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위로받기를 거부한 것이고, 결국 여기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 역시 이미 치명적인 두 마음일 수 있다. 설교자를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조금 더 마음을 성결하게 하자. 이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도록 힘쓰자. 또한 앞으로 다룰 이야기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설득의 즐거움을 느끼기 원하는 마음, 누군가를 설득해서 만족하기 원하는 마음,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만족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두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야 할 일을 망각한 마음이다. 주여, 이 글이 모든 것을 쫓아내고 오직 선만이 관심사가 되게 하

소서! 이처럼 오직 선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락가락한다. 선을 마음에 품었다가, 어떤 때는 세상 것을 구했다가, 어떤 때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도 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길 믿는다면, 그래서 이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선을 마음에 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어느 길에서 있든 필경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원컨대, 이 글이 치유하는 일 말고 누구도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원컨대, 이 글이 누구도 화를 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만 진리가 되게 하소서.

원컨대, 이 글이 진리로 침투하여 숨겨진 것을 폭로하게 하소서.

원컨대, 이 글이 두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선을 위한 마음을 얻게 하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창우 목사(키에르케고어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역자, <창조의 선물> 저자)

건강상식

춘곤증 해소엔 신 맛 음식이 제격

길가에 핀 꽃과 따스한 바람만이 봄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 인체 역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해마다 이맘때면 몸이 나른해지고 자꾸 졸음이 오며 입맛이 없어지는 춘곤증이 바로 그것이다.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게 되면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을 겪으며 나른함이나 피로 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동양사상에서는 봄을 밖으로 기운이 솟아나는 계절로 보는데, 겨울 동안에 움츠려 있던 기운이 뻗어 나가면서 춘곤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춘곤증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그 증상 정도가

심각하여 매우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져 업무나 일상 생활마저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 식사 시간 등을 일정하게 하고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도록 하여 심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조량이 많아지면 뇌수체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 인체 내 비타민D가 많이 생성되고 뼈가 튼튼해지므로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도록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좋다.

더불어 적당한 운동으로 혈행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겨우내 움츠려 있던 몸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더 피로해지고,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산책이나 조깅,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이 좋다.

춘곤증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되 과식하지 말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비타민 B1은 피로 물질의 분해를 촉진하므로 돼지고기, 현미, 콩,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 C 역시 피로를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춘곤증을 이기는데 효과적이다. 봄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춘곤증에 그만이다.

특히 신맛은 식욕을 돋워주고 졸음을 쫓아주므로 봄나물을 새콤하게 무쳐 먹는 것도 좋다.우리 선조들도 봄이 되면 겨우내 초장을 친 초란, 청포묵과 미나리를 초장에 버무린 탕평채, 오미자 끓인 물에 녹두국수를 넣은 화면 등 새콤한 음식을 즐겨 먹었다.

춘곤증을 해소하는 데는 매실차와 구기자차, 오미자차도 좋다. 매실차는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를 없애주고 소화를 도와주며, 구기자차는 간 기능을 도와 피로감을 덜어주고 봄철 건조한 피부에도 효과적이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의 다섯 가지 맛을 낸다는 오미자는 본래 기억력과 시력 감퇴에 좋는데, 뇌파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을 쫓아준다.

은혜 한 장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5



基督日報
기독교 www.cdaily.co.kr



Rafa Sulfur Spot Pine Shampoo Bar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유황 온천욕



9가지
에센셜 오일



All In
One
올인원
멀티 케어



유황 온천의
40,240배 농도



10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 043-900-0377
쇼핑몰 주소 www.rafarophe.com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은혜의 샘물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나자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몰아내고 쏟아놓는 경건하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도 바쁘게 주님과 고요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혼잡하게 살아가는 형편이다. 이때는 아니 되는데 하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은 일시적이고 돌아서면 세상일에 얽매어 주님을 잊어먹는 시간들이 비일비재하다. 마치 예루살렘에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의 부모들은 동행중에 있는 줄로 알고 태연하게 길을 재촉하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는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자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것과 같이 우리의 우리들도 분주 복잡한 일들 속에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아니한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태풍과 같은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나듯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나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그를 만났다.

사도요한은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다(계:3). 이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읽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킬 때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였지만 현실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태도보다도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큰 악기와 더불어 광란에 가까운 분위기에 편승되어 감정적인 환경 속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듯한 착각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찾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에서도 겨울에는 동안거(冬安居)라는 기간을 두고 고요한 사찰을 찾아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수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여름에는 하안거(夏安居)라는 기간을 두고 모여서 수도를 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철인의 말을 빌리지 아니하여도 성경 저자는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는 끈고할 때는 생각하라 등등 생각하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생각하라는 말은 열한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나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구원받은 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이에게 보답할 것을 생각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졌어야 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피정(懺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음을 피하여 수도원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세속적인 수식을 끊고 영성훈련에 몰입(沒入)한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도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그들 나름대로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의 길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종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교인들로서는 가져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에서도 그와 같은 경건한 훈련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명상하고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누구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명상하며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보다 자기를 알리기에 급급하

여 속사람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문제가 있다.

혹 시간을 내서 수양회 및 수련회라는 명분으로 산으로 혹은 농촌교회로 몰려 가지만 명상하여 자기를 알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참회의 값진 시간보다는 프로그램에 얽매어 우굴우굴 들끓다가 시간만 보내고 보니 남는 것은 허탈뿐이고 영성훈련은 제대로 되지도 아니하여 부흥회라는 방법으로 강사를 청하여 신앙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헌금이나 강조하고 축복이나 받으라고 지나치게 기복적인 면으로 치우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여 부흥회 후의 부작용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수준이니 문제가 없지 않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라는 형식을 시간을 활용하는데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 수준이고 간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강사의 체험담만 들으니 거기에 성경의 역사가 주관하지 않으며 별별 방법을 동원해도 영적인 성장은 요원하니 한국교회는 시끄러운 교회라는 세인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모세와 같이 깊은 회심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단독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그가 받은 십계명과 같은 것은 받지는 못해도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고요한 시간을 가짐으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뵈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자아가 깨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남의 것 토색한 것은 사 배로 갚겠다는 통회의 고백이 나와야 하고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지듯이 우리의 건 사람이 깨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제이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개개인들이 조용히 신앙을 정돈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통곡과 더불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여 말씀중심 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 중심 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윤근 [義城教會 牧師]

천로역정

징계의 목적

하나님께서 징계나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복된 뜻과 연합을 이루고, 그 뜻으로써 그분 자신과 연합을 이루며 그분의 사랑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그리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



하셔서 이러한 개인적인 회생이 한 가지 원칙, 곧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힘을 가르쳐 주십니다.

종종 고난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적대감을 일깨워서 한때 마음에 가득한 듯 보였던 평안함과 경건함을 일순간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징계를 우리 속에 편만한 자기 고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밝혀 드러내는 도구로 받아들일 때, 우리

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요한 교훈 가운데 한 가지를 배운 셈입니다.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모두 와서 예수님, 곧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의 뜻을 버리셨으며 온전하게 되었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거룩함의 비결이고 그분의 영광의 비결이며 그분의 생명의 비결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성경상식

불과 유황

[fire and brimstone] 지옥의 핵심은 불 영어에서 유황은 보통 'sulfur'라고 표기하는데 'brimstone'이라면 뿜까? 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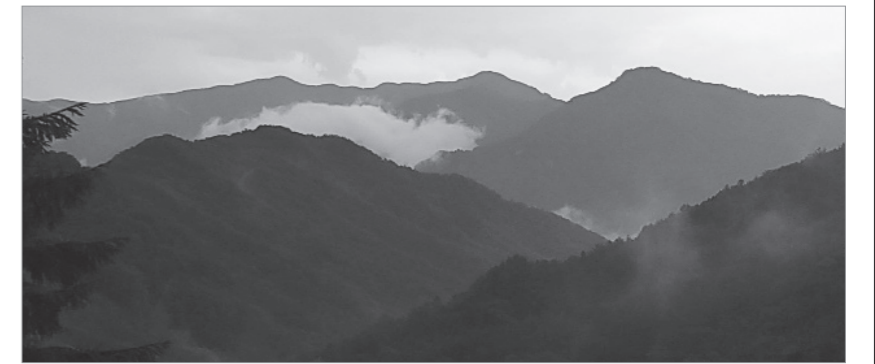
에 유황은 불타는 돌, 즉 burn-stone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 나중에 brimstone으로 바뀐 것이다. 창세기에는 신이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파괴했다고 되어 있다(창세기 19:24). 아마 화산 폭발이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사탄과 신앙 없는 자들이 불과 유황

의 호수에 던져져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이라고 말한다(요한계시록 14:10, 19:20, 21:8). 그러므로 '불과 유황'이란 '지옥'의 다른 표현이다. 들녘출판사 제공

향유옥합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대하기가 자기를 근거리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를 자식처럼 여겨 모두를 품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Everything's OK!



정경훈 목사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편 1-6절)

누워만 계시게 되었다. 누워계시다기도 목사가 불사에 심방가면 웃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앉으려고 애를 쓰셨다. 그런데 교회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던 때부터 집사님은 누구를 보더라도 “Everything's OK!” 라고 소리 질렀다. 워낙 목소리가 가늘어서 목에 핏대가 서도록 소리를 질러도 우리 귀에나 들릴 정도였다. 식구들은 그런 집사님을 부끄러워했으나 나는 그분으로부터 귀한 방언을 배웠다. 내가 집사님에게 다른 말을 하거나 때로는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고개를 끄덕, 웃기만 하시다가도 내가 집사님에게 배운 대로 “Everything's OK!”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자신도 덩달아서 크게 웃으면서 방언으로 대꾸해 주셨다. “Everything's OK!”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그리도 좋으신지 그저 만사 오케이라 하신다. 그리고 아무런 염려 말라는 뜻이 웃어주신다. 맞아. 음악적으로 우리가 '가온 C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알고 있다면 지금 저 사람이 부르는 노래의 음정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웅고 그음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나만큼은 만사를 바르게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란 '가온 C음'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흐름이나 생각이, 가치관들이 과연 올바른지 아닌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웅고 그음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나만큼은 만사를 바르게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란 '가온 C음'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흐름이나 생각이, 가치관들이 과연 올바른지 아닌

다면 틀렸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판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판별한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많은 기계들이 집사님의 몸 곳곳

에 붙어서 마지막 호흡을 이어주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나의 마음에는 “Everything's OK!” 라는 집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다. 그것이 시편 150편 말씀이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호흡'이라는 단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 스스로의 힘을 달고 하는 것도 포함하는가? 신학자가 아니면서도 신학자인 체 생각했다. 호흡하고 있는 집사님의 숨소리는 산소를 압축했다가 풀어주는 기계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Everything's OK!” 로 들린 것이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에 남는 인생재료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인생재료인 한 호흡, 마지막 호흡을 생명이 없는 기계에 불어넣어 기계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고백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Everything's OK!” 라는 고백을 하려면 그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

른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 바른 신앙고백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재료를 주셨다>는 것과 나 혼자서는 그것들을 선한 결과물로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던 일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고백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가온 C'가 되는 것이다.

이 '가온 C'가 있다면 시편 150편에 나와 있듯이 <장소불문(場所不問), 내용불문(內容不問), 악기불문(樂器不問), 인종불문(人種不問) 방법불문(方法不問)>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집사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볼 때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신앙의 사람이 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Everything's OK!” 라는 방언이 나온다. 지금 내 입장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입술의 고백만큼은 한결같이 이 방언이 나온다.>

정경훈 목사 (전주새한교회 담임목사)

회중 찬송의 10가지 이유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기 위하여

-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 50:23).

-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11).

-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 5:13).

- 회중찬송은 감성회복과 치유의 도구이다.

2.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도록 돕기 위하여

-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 100:2).

- 네 생령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나... (계 5:8-9).

- 노래를 부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측면이 있다.

- 예배를 하나의 “찬양 예배”로 생각



김영국 목사

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임재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라.

3. 하나님의 말씀사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나...” (왕하 3:15).

4.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하여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

-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하는 것은 성경구절을 암기하는 뛰어난 방법이다.

- 예배시간은 다른 여러 가지 일과 함께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하다.

5.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계 1: 5,6).

-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에 대한 축하의 노래이다.

-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찬양의 노래이다.

6.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를 높여 찬양하기 위하여

-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 12:32).

-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될 것이며 그의 공훈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 찬송은 복음증거의 도구이다.

7. 역사의 최종 결과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

-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골 2:10-11).

-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그 날을 위하여 실행하

고 있는 것이다.

8.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대하 20:22).

-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을 결박할 것이다. (시편 149편 전체, 특히 6-9절).

9.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보좌를 세우기 위하여

-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기록하시나이다” (시 22:3).

-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의 청지기들이라. 그의 보좌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10. 교회를 결속시키는 일을 돕기 위하여

-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은사를... 기뻐하리로다” (예3:12).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은 거침없는 통합과 결속의 마음을 일으킨다.

- 회중찬송은 교회의 하나 됨의 표현이다.

[Songs for Praise & Worship] 464-465 쪽, 번역 김영국



◆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공부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이며 스승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 동안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에서 사역하였다. 지금은 저서와 번역, 그리고 웹사이트 매거진 “예배음악”(Worship Music)에서 음악목회에 관한 칼럼을 쓰면서 자신의 음악목회 경험과 사역을 나누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장로교출판사가 펴낸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가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한진관광 KAL 투어 KALOPAK

MSC CRUISES

인생 여행, 크루즈!



품격 일본 대만 크루즈 7일
 특가일정/발코니 무료 UP/오키나와/이시가키/타이베이
2,790,000 원~ ★6/2 단, 1회★ 선택관광 있음
 ▶ 타이베이 관광101타워전망대, 발마사지 까지 ALL 포함
 ▶ 요코하마/오키나와(나하)/이시가키/타이베이



품격 한일 크루즈 7일 부산 도착 일정
 특가일정/발코니 무료 UP/도쿄/무로란/사카타/가나자와
2,542,600 원~ ★10/2 단, 1회★ 선택관광 있음
 ▶ 도쿄(나리타)/무로란(보보리베츠)/사카타/가나자와/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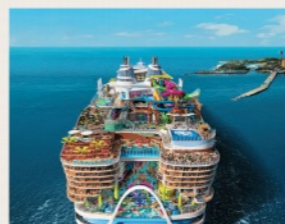
★MSC 벨리시마호 171,500톤/총 승객수:5,600명/19층/2019년 취항



품격 동부 지중해와 발칸 관광 10일
 비즈니스석/발코니 무료 UP/산토리니/두브로브니크
10,900,000 원~ 선택관광 있음
 ▶ 7/19, 8/30 단, 2회 [독일항공 비즈니스석/로알캐리비안 익스플로러호]
 ▶ 라벤나/두브로브니크/산토리니/아테네/자다르/리벤나



품격 퀘벡 단풍/나이아가라 16일
 발코니 무료 UP/메이플 시즌 크루즈 일정
16,222,000 원~ 선택관광 있음
 ▶ 10/6 단, 1회 [프린세스 에메랄드호] ▶ 보스턴/록랜드/세인트존/헬리팩스/시드니/살라타운/사기네이/퀘벡/오타와/토론토/나이아가라



품격 중미/바하마 크루즈 12일
 로알캐리비안 선사 코코케이 기항/발코니 무료 UP
12,000,000 원~ 선택관광 있음
 ▶ 8/15, 10/24 단, 2회 [24년 7월 신규 취항, 23만톤 초대형 크루즈]
 ▶ 멕시코, 코스타리카, 올랜도 자상관광과 바하마 크루즈 4박 5일 결합 여행

가장 빠르고 가깝게! 대한항공 유럽 직항 전세기 상품과 품격 있고 깊이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세기 상품 양국정부 승인조건

그리스
 아테네 직항 전세기
 4/12, 19, 26, 5/3, 10 (금) 단, 5회

콘카서스
 트빌리시/예레반 직항 전세기
 5/22, 29, 6/5, 12 (수) 단, 4회

북유럽
 노르웨이 오슬로 직항 전세기
 6/19, 26, 7/3, 10, 17, 24, 31, 8/7, 14, 21 (수) 총 10회

예약/문의 대표 전화 **1566-1155** www.KALTOUR.com 부산/대구 051-463-2115 한진관광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후원사입니다. 대리점 개설 문의 02)726-5518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 제1983-01호(서울시 중구청 등록)」, (주)한진관광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8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9층 ▶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여행업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 공통사항: 상품가격 외에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기사 경비입니다. ▶ 호텔: 1급호텔 이상(2인 1실 기준) ▶ 식사: 전일정 식사제공(단, 일부상품의 자유시간 중 중/석식 제외) ▶ 최소출발인원: 10명(이상)일부상품 제외 ▶ 교통편: 항공/버스/패리 등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 상품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 및 택스(매주 변동)에 의해 변동가능 ▶ 여행보험 처리: 1566-1155 ▶ 안전경보단계: ①여행유의 (여행자제) ②참수권고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여행금지 (여행금지)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항공택스,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일정상의 식사요금, 기사/가이드 경비(현지 지불), 여행자보험 1억원, 현지관광입장료 등, 일정표상의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단, 자유여행 상품은 미적용) ▶ 외국 비자비용 상품가격 외 별도지불 ▶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별도)의 유무는 상품의 일정 옆에 표기하였으며,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에 따른 일정 변경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